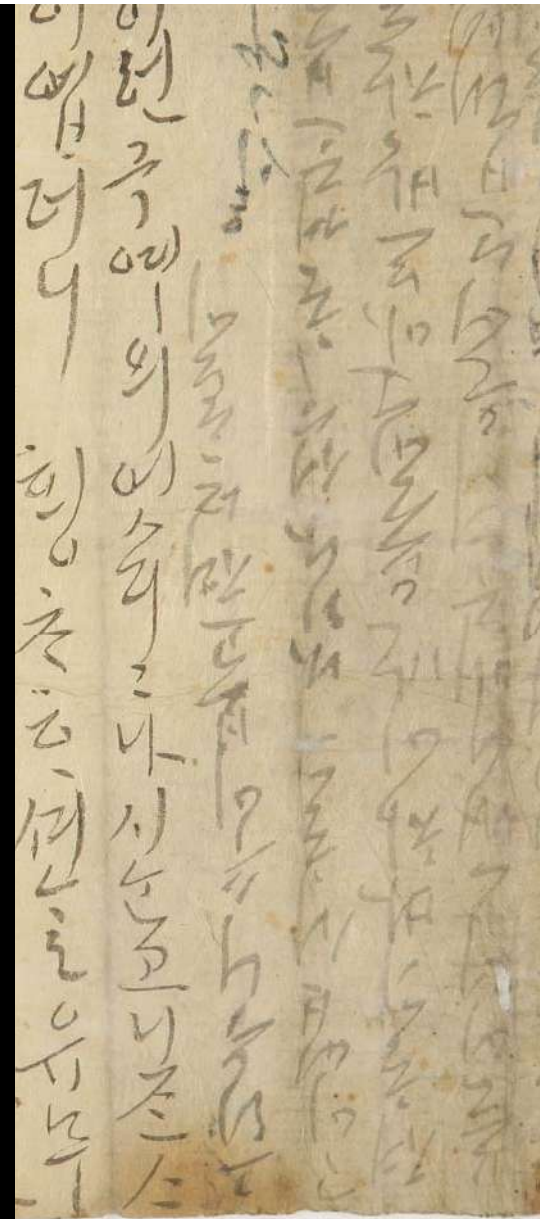


# A Study on the Content and Value of the Hangeul Letters(eongan) written by Jang Gyehyang and Yi Simyeong

장계·향이시명 한글 편지(언간)의 내용과 가치  
배준영  
(Korea University)



---

# Inde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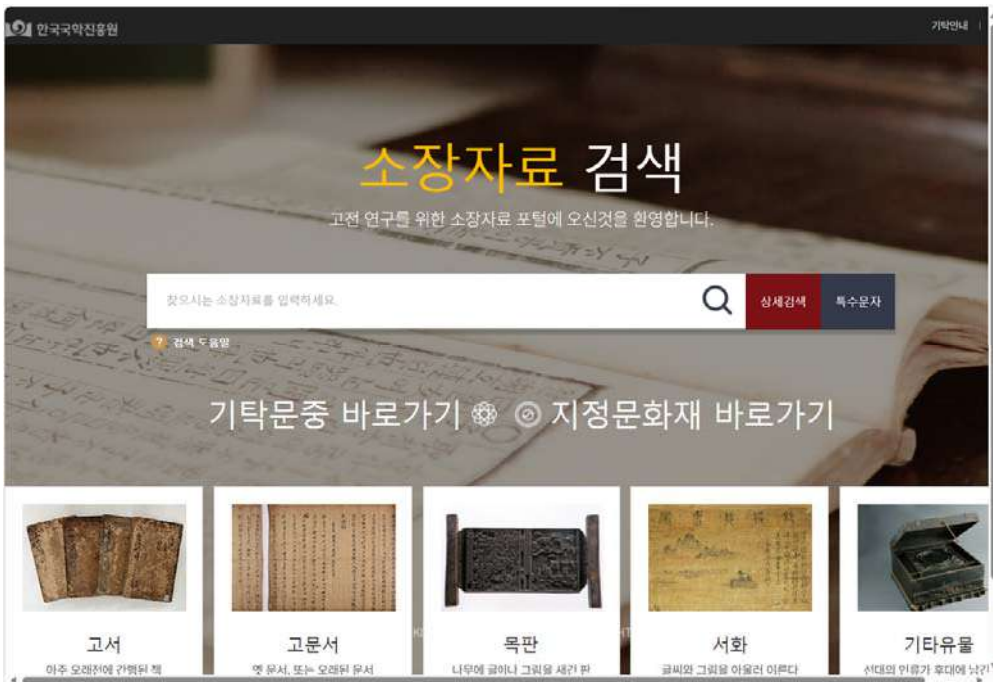
1. 편지의 발견
2. 편지 속의 인물과 장소
3. 편지의 주요 내용
4. 한국학 연구를 위한 한글편지의 가치

# 1. 편지의 발견

# 한국에 남아 있는 고문서들 = 한국학 연구의 보물들

한국국학진흥원 자료실 <https://kostma.aks.ac.kr>

한국학자료포털(AKS) <https://kostma.aks.ac.kr>





7. 278\_001.jpg



7. 278\_002.jpg



8. 279\_001.jpg



8. 279\_002.jpg



9. 280\_001.jpg



9. 280\_002.jpg



10. 281\_001.jpg



10. 281\_002.jpg



11. 282\_001.jpg



11. 282\_002.jpg



12. 283\_001.jpg



13. 284\_001.jpg



13. 284\_002.jpg



14. 285\_001.jpg



14. 285\_002.jpg



15. 286\_001.jpg



15. 286\_002.jpg



16. 287\_001.jpg



16. 287\_002.jpg



17. 288\_001.jpg



18. 289\_001.jpg



18. 289\_002.jpg



19. 290\_001.jpg



19. 290\_002.jpg



20. 291\_001.jpg



20. 291\_002.jpg



21. 292\_001.jpg



21. 292\_002.jpg



22. 293\_001.jpg



22. 293\_002.jpg



23. 294\_001.jpg



23. 294\_002.jpg



24. 295\_001.jpg



24. 295\_002.jpg



25. 296\_001.jpg



25. 296\_002.jpg



26. 297\_001.jpg



26. 297\_002.jpg



27. 298\_001.jpg



28. 299\_001.jpg



28. 299\_002.jpg



29. 300\_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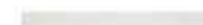
29. 300\_002.jpg



30. 301\_001.jpg



30. 301\_002.jpg





1. 272\_001.jpg



1. 272\_002.jpg



2. 273\_001.jpg



3. 274\_001.jpg



3. 274\_002.jpg



4. 275\_001.jpg



5. 276\_001.jpg



6. 277\_001.jpg



6. 277\_002.jpg



7. 278\_001.jpg



7. 278\_002.jpg



8. 279\_001.jpg



1번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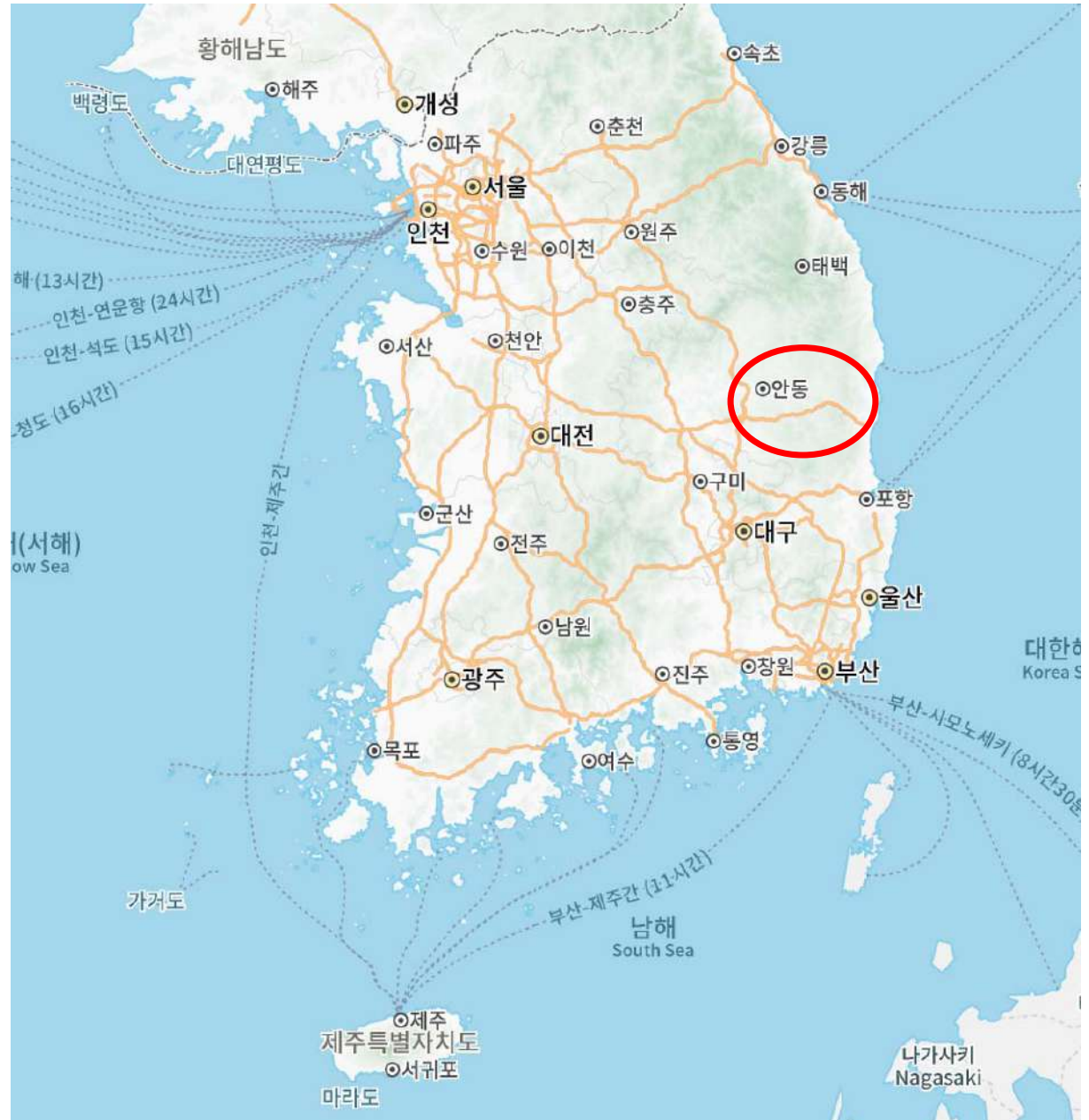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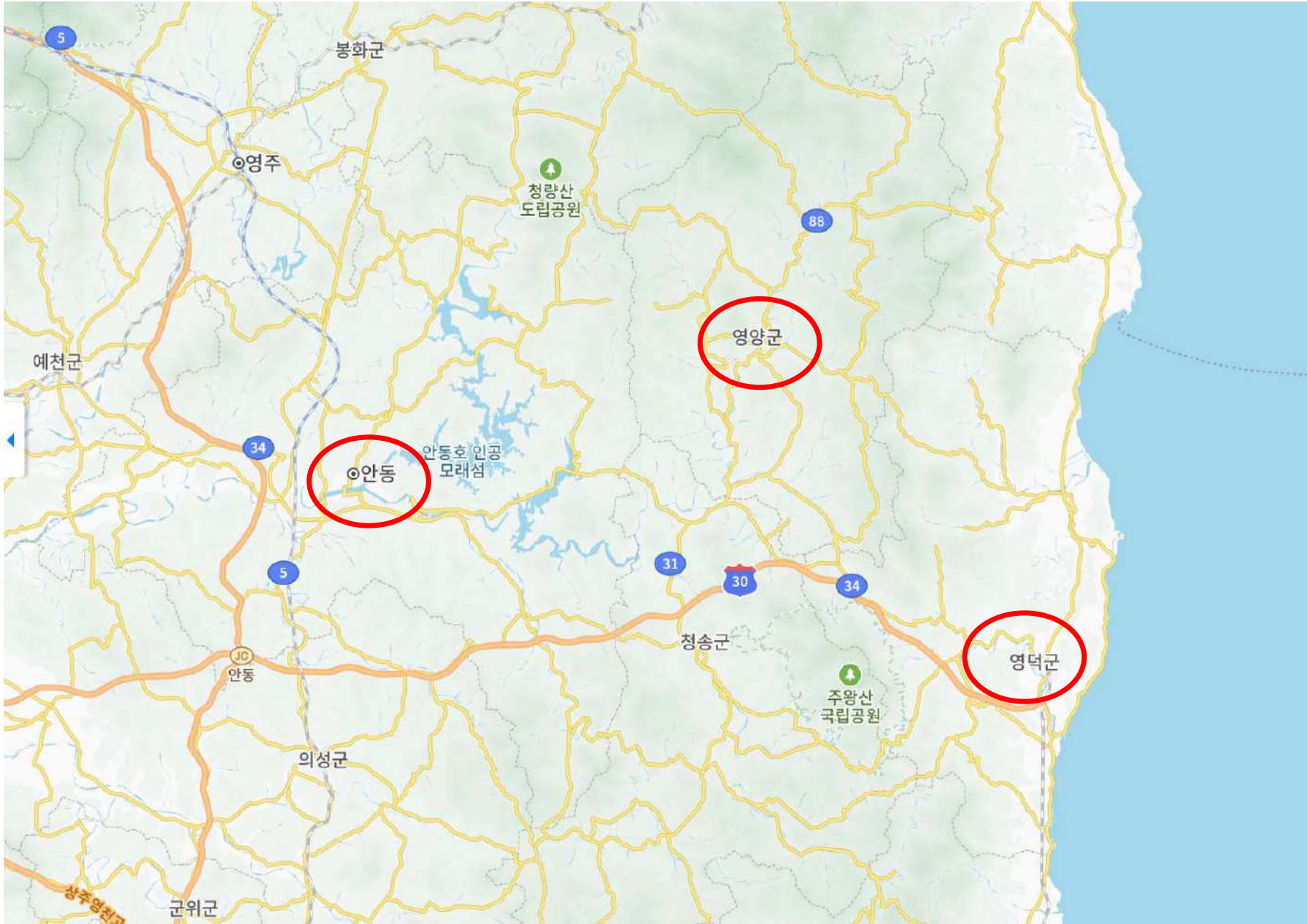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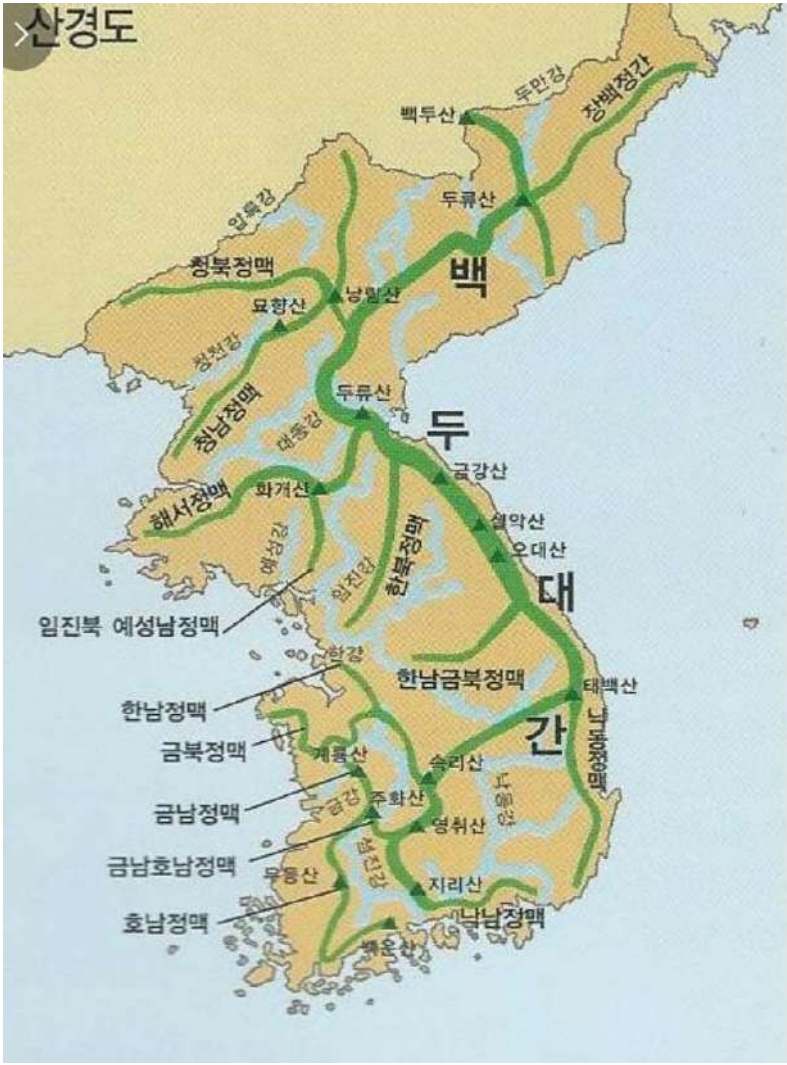




# 편지가 나온 장소

















경북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두들마을의 전경. 두들마을은 '언덕 위 마을'이란 뜻처럼 지대가 높은 산지에 자리잡고 있다. 영양군 제공



▲ 한국국학진흥원 전경 (C) 한국국학진흥원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18세기 남과 북의 사투리.  
강후진이 답하다

강후진의  
감영록

1667년 강원도 회양의  
풍경을 노래하다

이육사의  
청회별곡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두 사람의 같고도 다른 삶

채창해용 조영국의  
종교창가집  
해창해용 송기식의  
봉양가



강후진 18세기 남과 북의 사투리. 강후진이 답하다



이육사 1667년 강원도 회양의 풍경을 노래하다



채창해용 조영국의 종교창가집



해창해용 송기식의 봉양가



**논어언해 論語詳解**

유교의 핵심 경전인 사서삼경을 가운데 「논어」를 한글로 풀이해 교정청에서 간행한 책.

한국학중앙연구원 | 4책 | 35.5 x 22.5cm | 기탁, 조선서원 운영위원회



**태상감응편도설(언해) 太上感應篇圖說(諺解)**

중국에서 편찬한 도교경전 경전 「태상감응편도설」을  
중인中人 학자 최성환崔聖煥(1813~1891)이 한글 번역을 실어  
1852년(철종3) 간행한 책.

책판본 | (본본) 1책 | 30.2x20.7cm | 기원\_중앙초씨 사인공본가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유음** 諭中外大小臣人等所部諭音

1839년(헌종5) 10월, 헌종이 천주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린 유음을 한글로 옮긴 것.

금속활자본(경유자) | 1책 | 35.7x23.2cm | 기호\_영한이시\_윤곡준장

歸正之理 嗚呼 書不云乎 百姓有過 在予  
 一人 今茲 邪教之橫肆 職由予 寡昧 不能導  
 率之 咎反躬 自責 若恫在已 而載念 爾一寒  
 一煖 一飢 一飽 之節 罔非予小子 夙宵 謹懼  
 則其於 爾性命之 所關 係倫彝之 所維 持為  
 人 為歎 之 所 界 限 剖 判 者 予 又 安 得 不 重 言  
 復言 哀痛 而論 之也  
 道光十九年十月十八日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유음  
 왕이러시름이사디오회라종용에르오되하글이  
 명을심을일운척음이라하고상셔어르오되크신상  
 데하린의게총을나리오시미순하하야되엇한연음  
 이잇다하니그호근원비부알이라호처음음의논하  
 의를운린이라함말은상예라하은하늘은안데로  
 배말음미요상데노쥬지말음남로배말음미며르  
 온명이라하고글은강총이라함은순순트시참가르  
 처고그함미잇슴아아나라일리의발노는바에두귀  
 운이알선음며스쳐말이러의운천하노바에일만품  
 물이성음음어사름이어더성품된재그덕이네히이  
 시니름은인파와려와지요그름기다스시이시니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없었소. 남행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학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어부였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가는 말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뱃사람이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유교 부인 정랑, 한나라의 반철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마진을 조이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오든 부인님의 얼굴을 모뎀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견의 흉령함이 점점 돌아와 누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행할 개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린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언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늦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허루는 한 옷 입은 노파가 **영(靈)**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형의 병을 구하시오?"

24. 영(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영: 사 씨가 꿈에서 재계 되는 소리란, 사 씨가 반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 영: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 영: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영혼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이다.
- ㉣ 영: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면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광부의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 영: 유 한림이 군 공에 응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 즉각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단초이다.

차르한다는 설명에서, 유 한림의 재회가 상상소용으로 양상을 찾을 수 있겠군.  
 ㉡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영혼의 존재를 회복하는 장면에서, 고요가 있는 사슴이라도 활약을 기대할 때는 나머지는 고정을 찾을 수 있겠군.  
 ㉢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의 인연이 영혼의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에 '영'의 역할이 사 씨를 돕는 장면에서 기이한 인연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찾을 수 있겠군.  
 ㉣ 학사정이 영계가 된 유배가 신이영지는 사슴들에게 반인물에게 지금까지 정통한다고 한 공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형의 할에 연관적으로 고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있겠군.  
 ㉤ 유 한림에게 같은 고초를 겪은 영혼이 사슴을 한두 마리 놓아 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합의 요소를 파악한 뒤, 그 이야기를 설명한 것으로 재부회하는 근거라는 것을 볼 수 있겠군.



**사씨남정기 謝氏南征記**  
 "사씨남정기"는 조선시대 문인인 유한림이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겪은 고초를 다룬 것으로, 유한림의 생애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1. 유한림의 생애: 유한림(1805~1870)은 조선 말기의 문인이다. 유배 생활을 겪은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문예적으로 표현했다.  
 2. 사씨남정기의 내용: 이 소설은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겪은 고초를 다룬 것으로, 유한림의 생애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3. 사씨남정기의 의의: 이 소설은 유한림의 생애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인물의 심리를 쉽게 공감하게 된다.

사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사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② 사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게 된다.

③ 유년 '나'로 자신을 표현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비출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게 된다.

④ 유년 '나'로 자신을 표현하여 후부리 경관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경관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⑤ 유년 '나'로 자신을 표현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게 된다.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백어났으니 산천의 경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온택한 옥과 빛나는 보배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위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여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환실, 장 시 ㉠이환결에 들어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끝맺어 해라자, 한이 눈앞에 맞고 술문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자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거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슬프고 뜻이 출가할 것이거늘, 천자의 구함으로 한 백마를 뵈는데 여귀 구하여 나의 아름다운 남궁을 빼앗아가 워세로써 나를 하여온 공주 지 사람의 아귀가 되게 하

12 15

오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환정을 떠나지 않았다. 언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비를 다 같은 뜻한 마음은 세상에 비해 대가 없더라.

- 국자 이상, 「유씨삼대록」 -

33. 「아름답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13 16

- ① 유세기가 아버지와 유세형 대대기를 보던, 국자의 말한 거문의 혼사를 중상으로 밟았단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 물러난 갈등 해결이 거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경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곤경을 풀린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귀 상으려는 것과 혼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유세기가 명성 황후 두지 않고 소 소자와 혼론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물러낸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가 끝나고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유씨삼대록 劉氏三代錄**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최자건대 이상의 공민 국문소설 20책, 10책, 17책, 15책, 8책 등 다량에의 가운데 소장되어 있다.  
한 가본의 예시를 소실한 것으로 분할 소장본은 아닌 듯하다.

원서명 | 1책 | 15.7x12.5cm | 179쪽, 201쪽 부속하여 200쪽







八友軒

時習齋

伴鴻亭

寶白堂

陶山書院

湛樂齋

愛日堂

陶山書堂

龍雲精舍



완동에서 영해로  
가는 길  
떠서까지 나온 곳)

장소, 주소, 버스 검색

검색 **길찾기** 버스 지하철 MY

○ 한국국학진흥원

○ 존재종택



최단거리

요금설정

**1시간 54분** 82.4km

통행료 약 0원 | 택시비 약 78,600원 | 주유비 약 12,452원

출발 한국국학진흥원

상세보기

↑ ① 73m 직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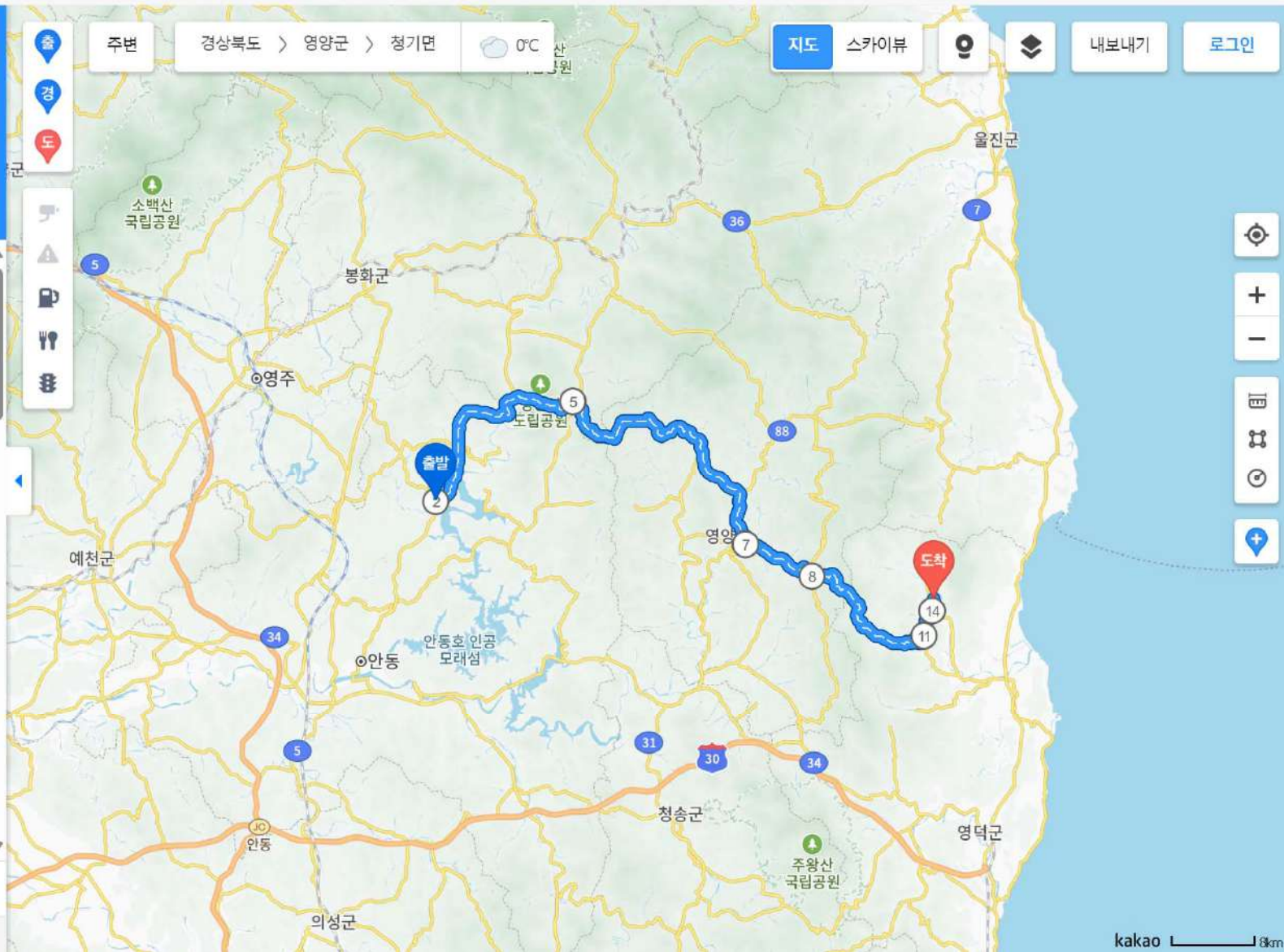
↶ ② 퇴계로 좌회전 후 16.5km 이동

경로인쇄

경로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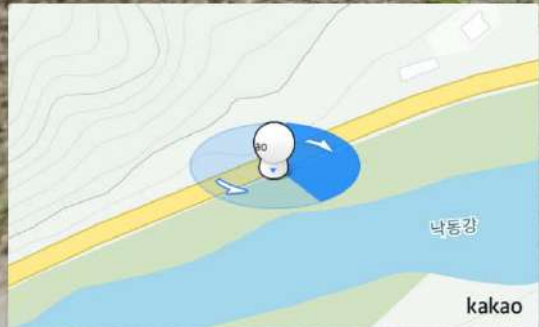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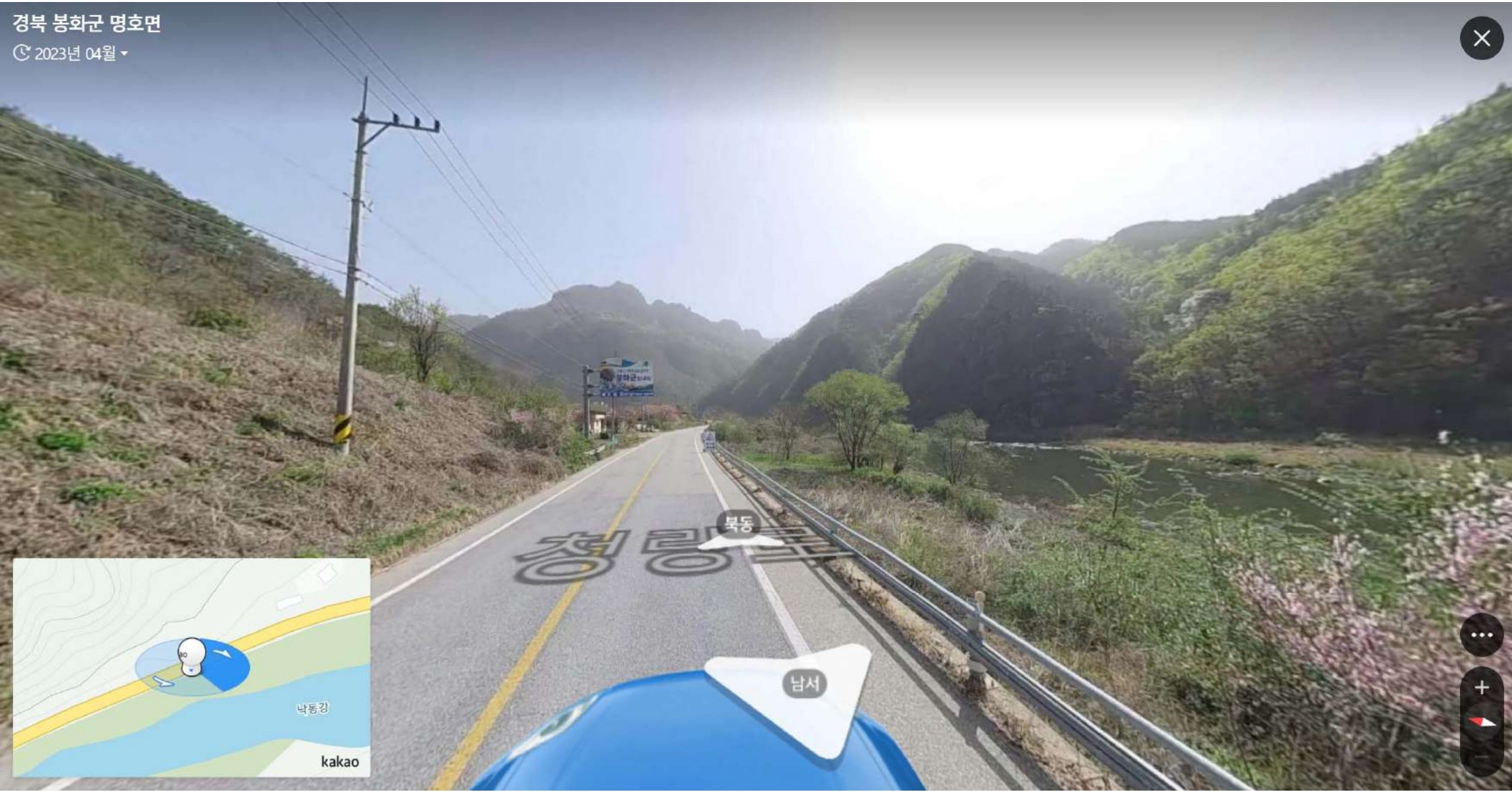
즐거찾기

고객센터 신규 장소 등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북 봉화군 명호면

🕒 2023년 04월 ▾



경북 봉화군 명호면

🕒 2021년 02월 ▾





경북 봉화군 명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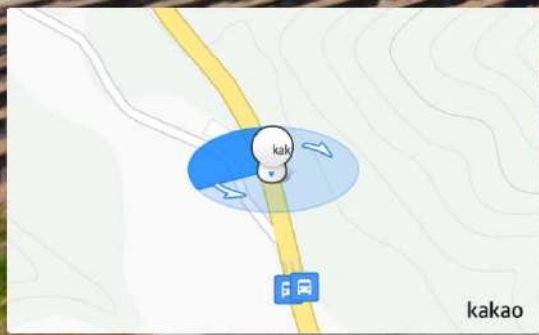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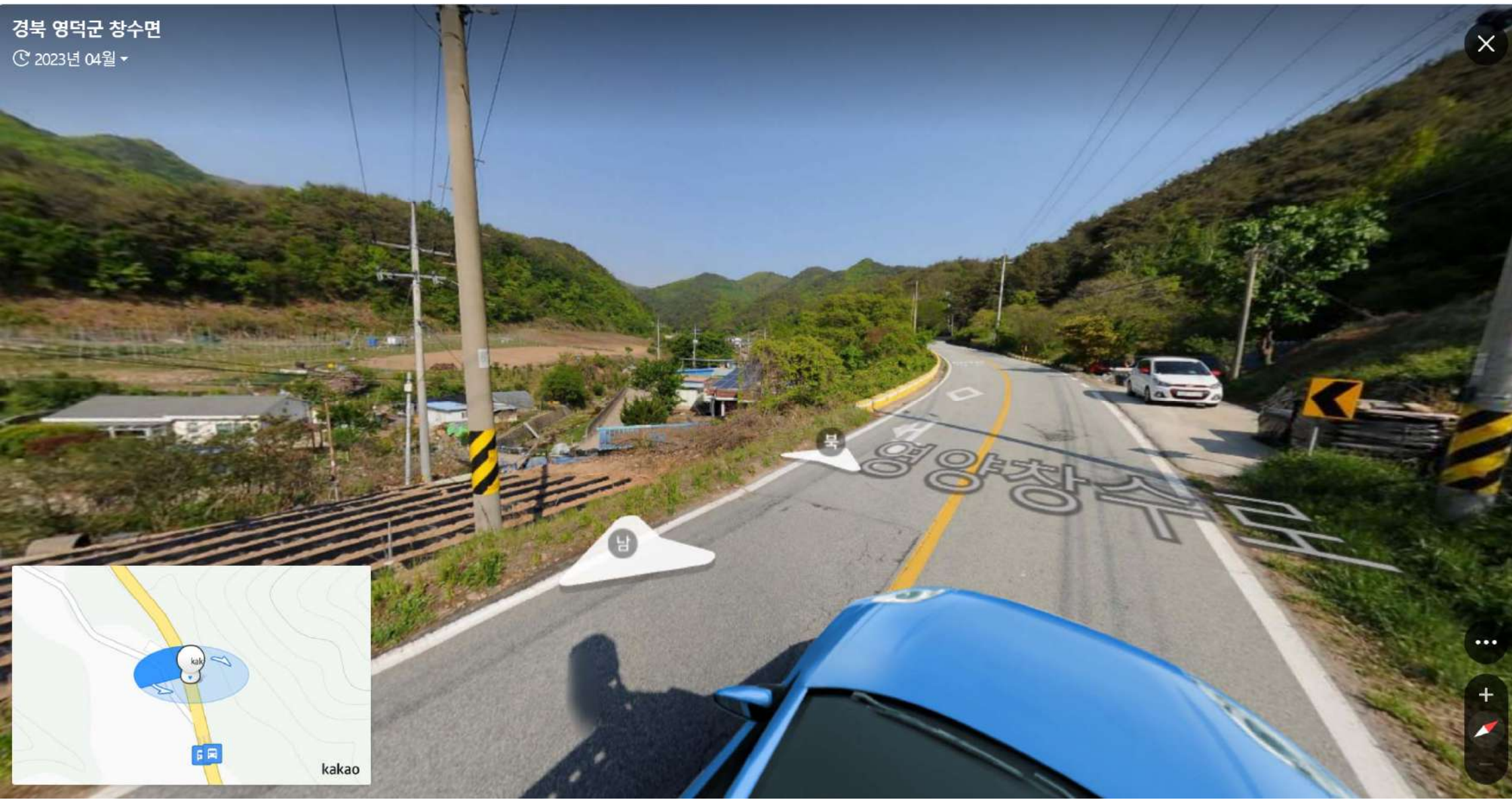
2021년 02월





경북 영덕군 창수면

🕒 2023년 04월 ▾



경북 영덕군 병곡면

2023년 0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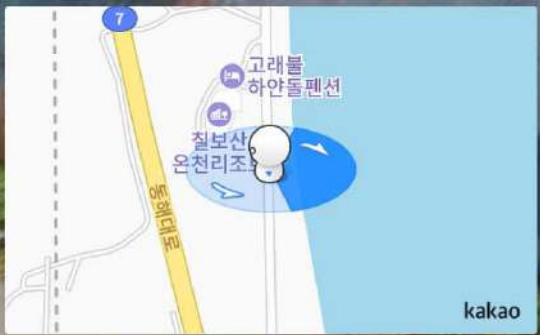
경북 영덕군 병곡면

🕒 2023년 04월 ▾



경북 영덕군 병곡면

2023년 04월







재령이씨  
존재종택  
(편지원보관  
장소)

+  
○

+  
○























載寧李氏寧海派譜卷之一

入鄉祖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p>女芮景祥 예진상</p>	<p>女朴士龍 박사룡</p>	<p>女權宜惕 권의상 安東人 武科</p>
<p>女黃允寬 황윤관 水使</p>	<p>女申俊民 신준민 丹陽人</p>	<p>女朱天顯 주천현</p>
<p>女蔡繼興 채계흥</p>	<p>子芮壽聘 예수당 女李允宗 이윤종 女許思賢 허사중 縣監</p>	<p>子申 活신 광 號竹老 죽노</p>
<p>子蔡增光 채증광 縣監 女孫汝誠 손이계 府使</p>	<p>子黃 蘋광 빈</p>	<p>女李 雷이 뇌 女崔 禎희 정</p>

寧海派

八都祖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p>子 璿 <small>字子溫 字溫</small> 一四八〇年庚子生 少從仲父參知公仲賢 字仲寧 寧海府西黨材洞乙向 父白元貞 明洞 典書雲卿 字子玄孫</p>		<p>子 殷輔 <small>字商卿 字子溫</small> 一五二〇年庚辰生 一五八〇年庚辰卒 贈左承旨 司直</p>		<p>子 光玉 <small>字昌寧 曹氏</small> 寧海府西六珍谷</p>		<p>女 南慄 <small>甘會 英陽人 判官</small></p>		<p>女 崔暉 <small>封 全州人 監司 號 認齋</small></p>					
<p>配 淑夫人 眞城白氏 一四八五年乙巳生 一五六七年丁卯卒 墓寧海府西黨材洞乙向 合葬 父白元貞 明洞 典書雲卿 字子玄孫</p>		<p>配 永嘉金氏 墓眞寶新溪後麓 卯向</p>		<p>配 義李氏 俱贈淑夫人 墓寧海府西日池卯向 李夫人墓在前 父忠義衛李舜應 李公怒長玄孫</p>		<p>子 時清 <small>字和叔 對字 號 清溪 對</small> 一五八〇年庚辰生 一六一〇年庚戌進士 一六六年丙辰卒</p>		<p>子 萃逸 <small>字景顯 對字 號 梅塢 明</small> 有遺稿 一五九八年戊戌生 一六五八年戊戌卒</p>		<p>子 楷 <small>字元禮 對字</small> 一六一八年戊午生 一六五七年丁酉文科官至奉事 一六六一年辛丑卒</p>		<p>子 之炫 <small>見下</small></p>	
<p>子 函 <small>字春源 對字 號 雲嶽 對</small> 一五八八年戊子生 一五七六年庚子擢第以策 語用莊見拔因李 完平元翼 萬官至 縣監 一六〇九年己酉再登第當 昏朝不仕 有文集 載州誌 一六三二年壬申六</p>		<p>配 務安朴氏 墓府西下芳洞卯向 夫人墓同原 在公墓後 父牧使朴弘長 對字 對</p>		<p>配 漢陽趙氏 墓府西日池先墓 下夫人墓同原 坐 父禮賓寺直長趙 任 對</p>		<p>配 東萊鄭氏 墓府西日池大齋 後燈巖向合葬 父李奉鄭榮復 對字</p>		<p>子 之炳 <small>見下</small></p>		<p>子 之煥 <small>見下</small></p>		<p>子 之頰 <small>見下</small></p>	
<p>子 時亨 <small>字泰叔 對字 號 愚溪 對</small> 一五八六年丙戌生 一六一二年壬子卒</p>		<p>子 傳逸 <small>字定賢 對字 號 清溪 對</small> 一六〇一年辛丑生 一六四一年辛巳卒</p>		<p>子 杓 <small>字定賢 對字 號 愚溪 對</small> 一六二五年乙丑生 一七〇〇年庚寅卒</p>		<p>子 之燦 <small>見下</small></p>		<p>子 之燻 <small>見下</small></p>		<p>子 之嫻 <small>見下</small></p>		<p>子 之嬾 <small>見下</small></p>	
<p>配 宜人 務安朴氏 墓府西上日池甲向合葬 父贈判書武毅公 朴毅 對字 對</p>		<p>配 清州鄭氏 墓寧海府西上芳洞蛇山卯向 夫人墓附前 父都事松鳩鄭 對字 對</p>		<p>配 淑夫人 驪州李氏 墓寧南麓祭向合葬 父事暇 對字 對</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秘 <small>字元長 對字 號 佳山 對</small> 一六三四年甲戌生 一六九二年辛未卒</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配 眞城李氏 墓府西仁川鉄店 谷丙向合葬 父李奉李 對字 對</p>		<p>女 柳聖載 <small>對字 對</small></p>		<p>女 金龜重 <small>對字 對</small></p>		<p>女 琴暉 <small>對字 對</small></p>		<p>女 權蒞 <small>對字 對</small></p>		<p>女 吳三達 <small>對字 對</small></p>		<p>女 吳三達 <small>對字 對</small></p>	

八都祖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愚溪公派

<p>子 時亨 <small>字泰叔 對字 號 愚溪 對</small> 一五八六年丙戌生 一六一二年壬子卒</p>		<p>子 傳逸 <small>字定賢 對字 號 清溪 對</small> 一六〇一年辛丑生 一六四一年辛巳卒</p>		<p>子 杓 <small>字定賢 對字 號 愚溪 對</small> 一六二五年乙丑生 一七〇〇年庚寅卒</p>		<p>子 之燦 <small>見下</small></p>		<p>子 之燻 <small>見下</small></p>		<p>子 之嫻 <small>見下</small></p>		<p>子 之嬾 <small>見下</small></p>	
<p>配 宜人 務安朴氏 墓府西上日池甲向合葬 父贈判書武毅公 朴毅 對字 對</p>		<p>配 清州鄭氏 墓寧海府西上芳洞蛇山卯向 夫人墓附前 父都事松鳩鄭 對字 對</p>		<p>配 淑夫人 驪州李氏 墓寧南麓祭向合葬 父事暇 對字 對</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秘 <small>字元長 對字 號 佳山 對</small> 一六三四年甲戌生 一六九二年辛未卒</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子 之燧 <small>見下</small></p>	
<p>配 眞城李氏 墓府西仁川鉄店 谷丙向合葬 父李奉李 對字 對</p>		<p>女 柳聖載 <small>對字 對</small></p>		<p>女 金龜重 <small>對字 對</small></p>		<p>女 琴暉 <small>對字 對</small></p>		<p>女 權蒞 <small>對字 對</small></p>		<p>女 吳三達 <small>對字 對</small></p>		<p>女 吳三達 <small>對字 對</small></p>	



入鄉祖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護軍公派

子時成 字時成

生一五九四年甲午七月十二日卒一六八二年以大學士授副理軍

配淑夫人昌慶黃氏 一五九二年壬辰

生一六六八年戊申十一月二十日卒 墓大田李判公墓復合附 父黃大仁 母司幸監正士佑玄孫

子徽逸 字徽逸

生一六一九年己未 號存齋 父時成 母昌慶黃氏

壬子正月二十八日卒 墓石保原院康向 士林立

配務安朴氏 一六〇一年辛酉 生一六五五年乙未四月十三日卒 墓合附 父經風功 母武毅公毅長孫

子儀 字儀

生一六四八年戊子 號梧村 父時成 母昌慶黃氏

生一六八五年五月九日卒 大田先墓左麓末向 有文集

配光州金氏 一六四四年甲申 生一七一六年丙申十一月二十九日卒 墓青林 紹皮山辰向 父金慶 母近始露城曾孫

子之燧 見下

子之權 見下

女權 槩

系豐山金氏 一六三三年癸酉 生一七一七年丁酉八月十一日

載寧李氏寧海派譜 卷之一

石溪公派

子玄逸 子挺 子國煥

字世孫 號南嶽 生一六四六年丙戌 庚寅十一月十五日卒

配貞夫人務安朴氏 一六二五年乙丑 生一六七二年壬子十二月五日卒 墓寧海府西仁良里香亭後麓巴向合附 父經風功 母武毅公毅長孫

子儀 字儀

出系仲父徽逸 引香齋先生后

子栽 字初材 號密庵 生一六五七年丁酉 庚戌五月二十日卒 墓安東府南武陵末向 以遺逸 屬授堂樂院主簿 有文集

子之煥 見下

子之燿 見下

子寅煥 見下

子之溫 見下

子東煥 見下

子復煥 見下

子之焯 見下

子碩煥 見下

子益煥 見下

女琴壽益 見下



7. 278\_001.jpg



7. 278\_002.jpg



8. 279\_001.jpg



8. 279\_002.jpg



9. 280\_001.jpg



9. 280\_002.jpg



10. 281\_001.jpg



10. 281\_002.jpg



11. 282\_001.jpg



11. 282\_002.jpg



12. 283\_001.jpg



13. 284\_001.jpg



13. 284\_002.jpg



14. 285\_001.jpg



14. 285\_002.jpg



15. 286\_001.jpg



15. 286\_002.jpg



16. 287\_001.jpg



16. 287\_002.jpg



17. 288\_001.jpg



18. 289\_001.jpg



18. 289\_002.jpg



19. 290\_001.jpg



19. 290\_002.jpg



20. 291\_001.jpg



20. 291\_002.jpg



21. 292\_001.jpg



21. 292\_002.jpg



22. 293\_001.jpg



22. 293\_002.jpg



23. 294\_001.jpg



23. 294\_002.jpg



24. 295\_001.jpg



24. 295\_002.jpg



25. 296\_001.jpg



25. 296\_002.jpg



26. 297\_001.jpg



26. 297\_002.jpg



27. 298\_001.jpg



28. 299\_001.jpg



28. 299\_002.jpg



29. 300\_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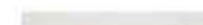
29. 300\_002.jpg



30. 301\_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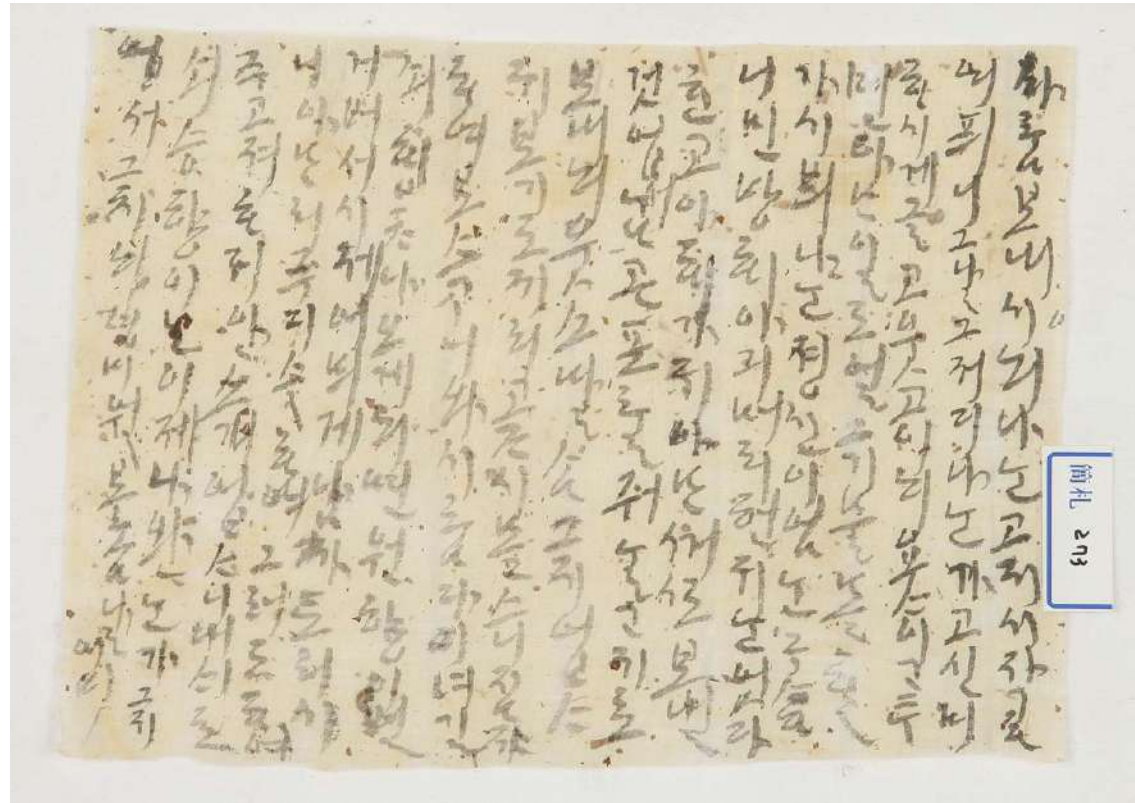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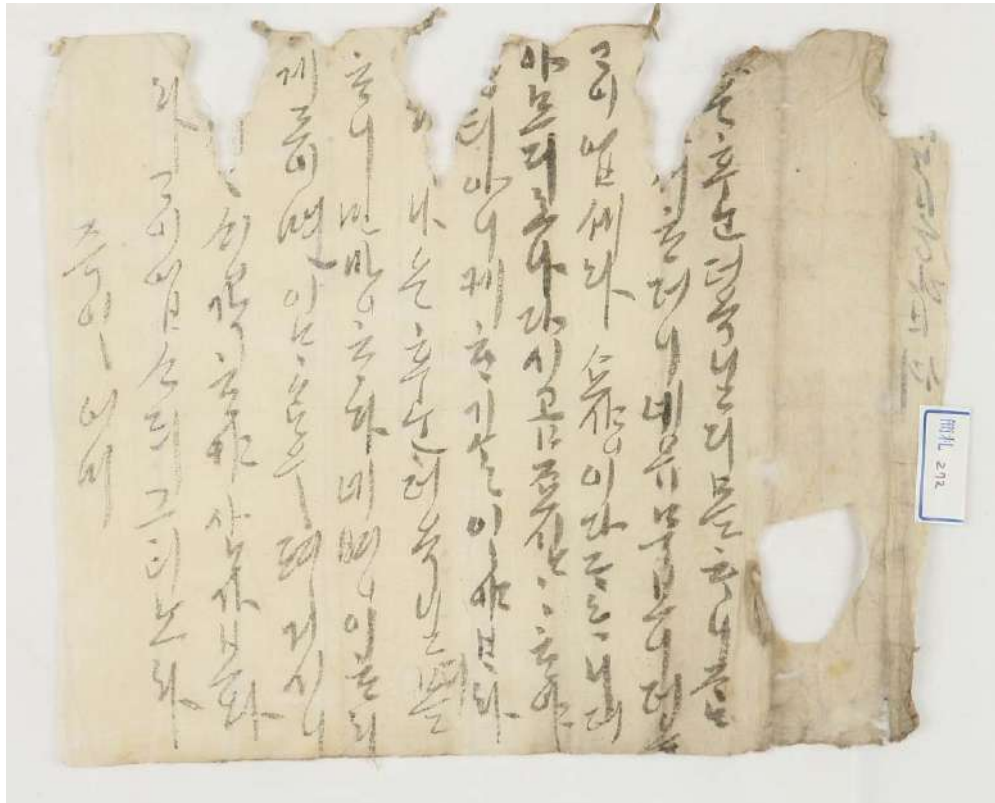


30. 301\_0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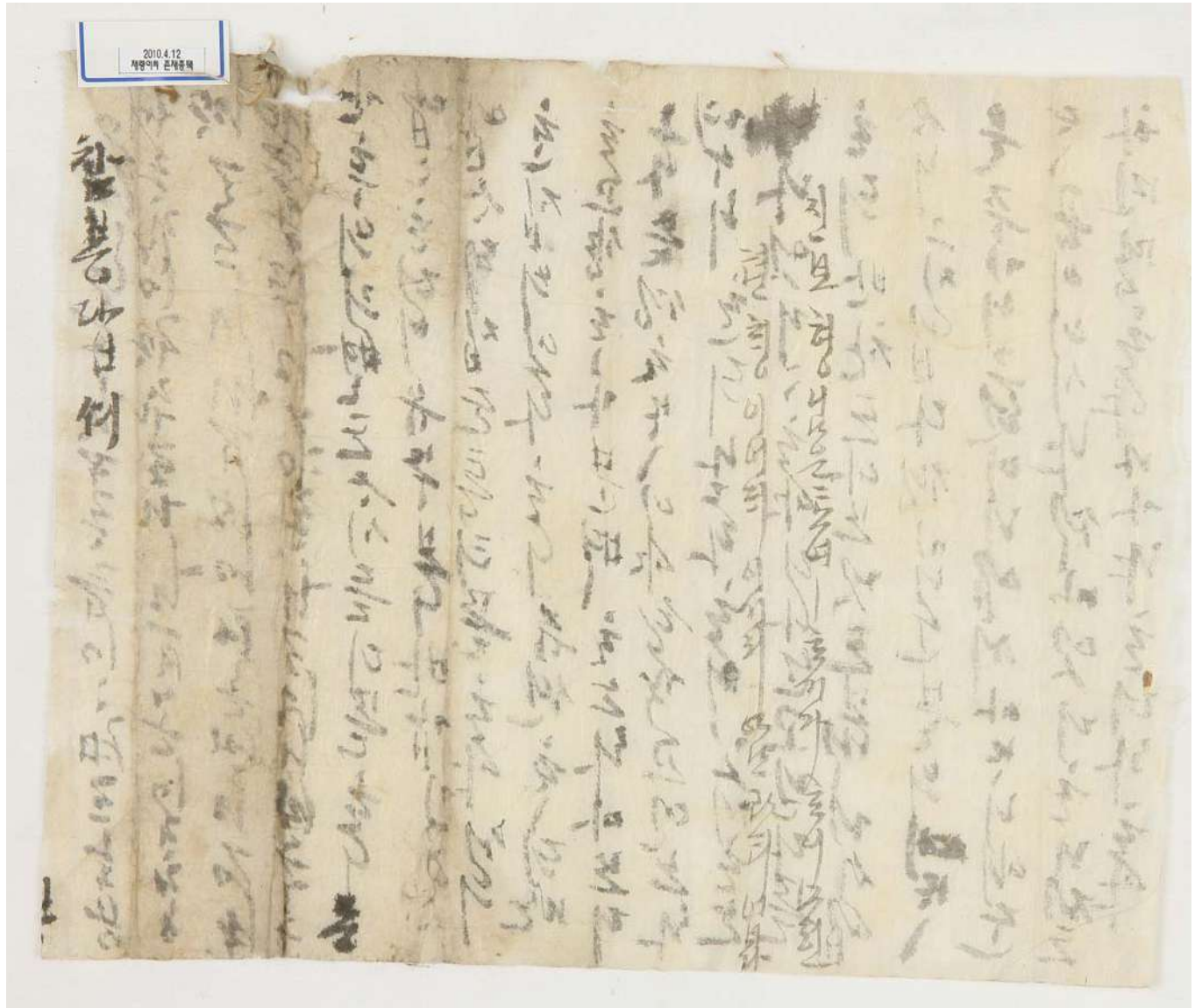
## 2. 편지 속의 인물과 장소

#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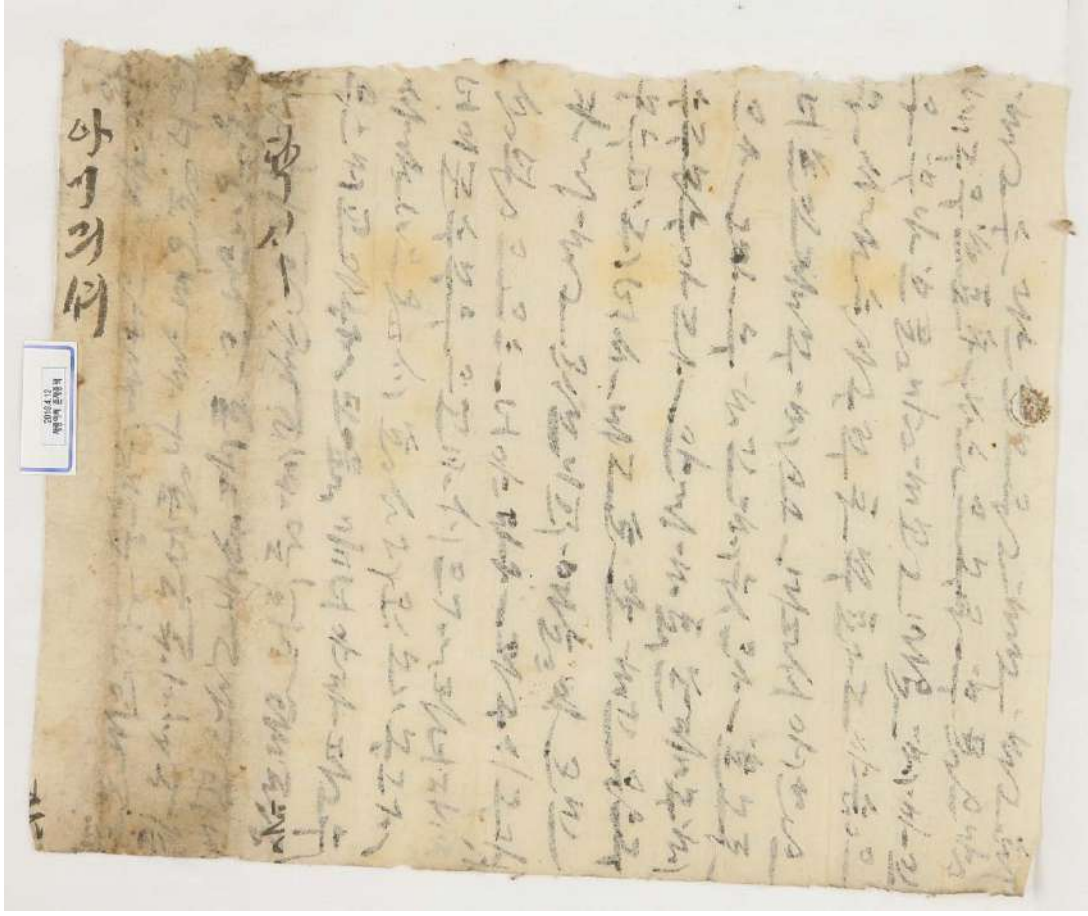




# '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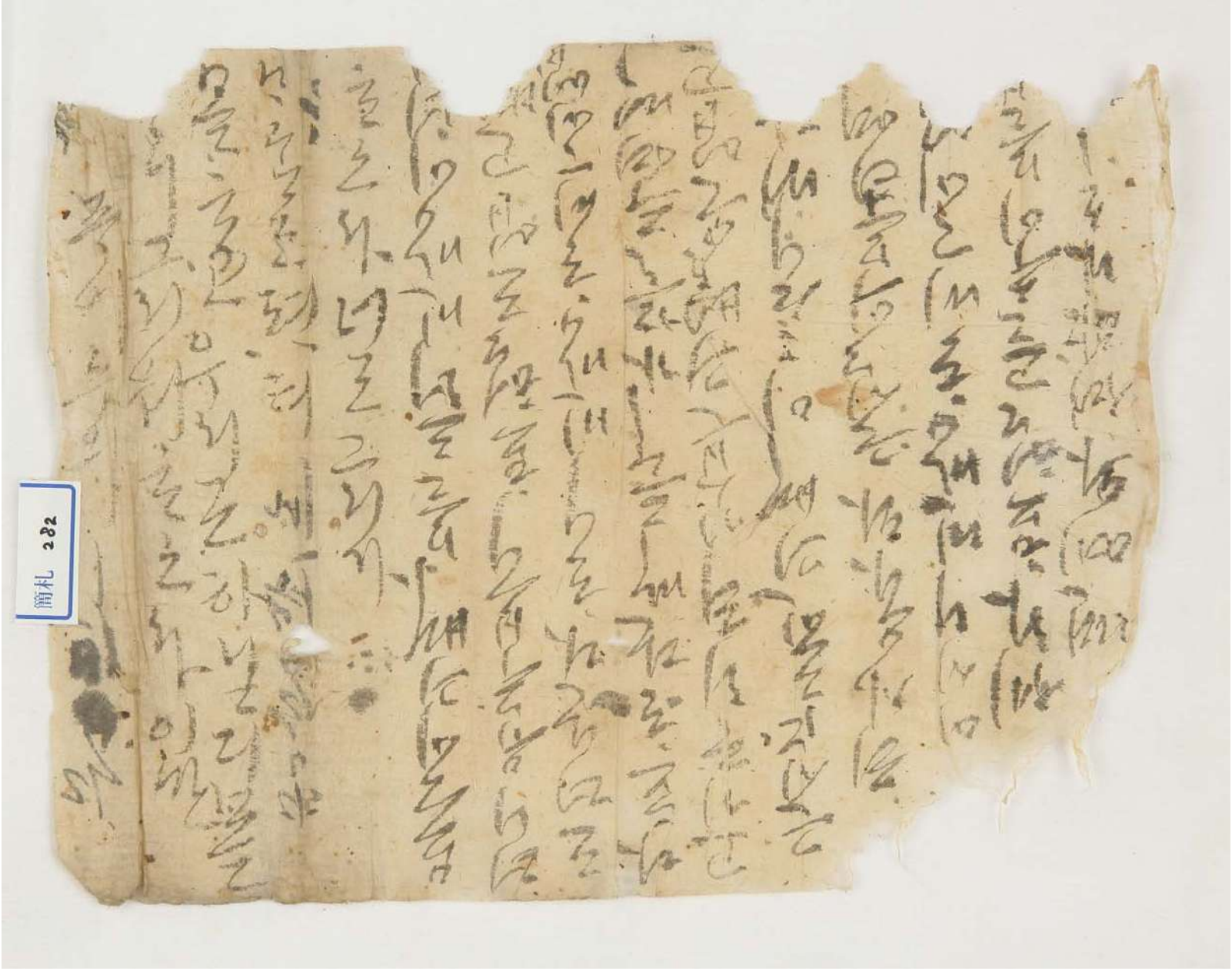


# '아기(아기)'





#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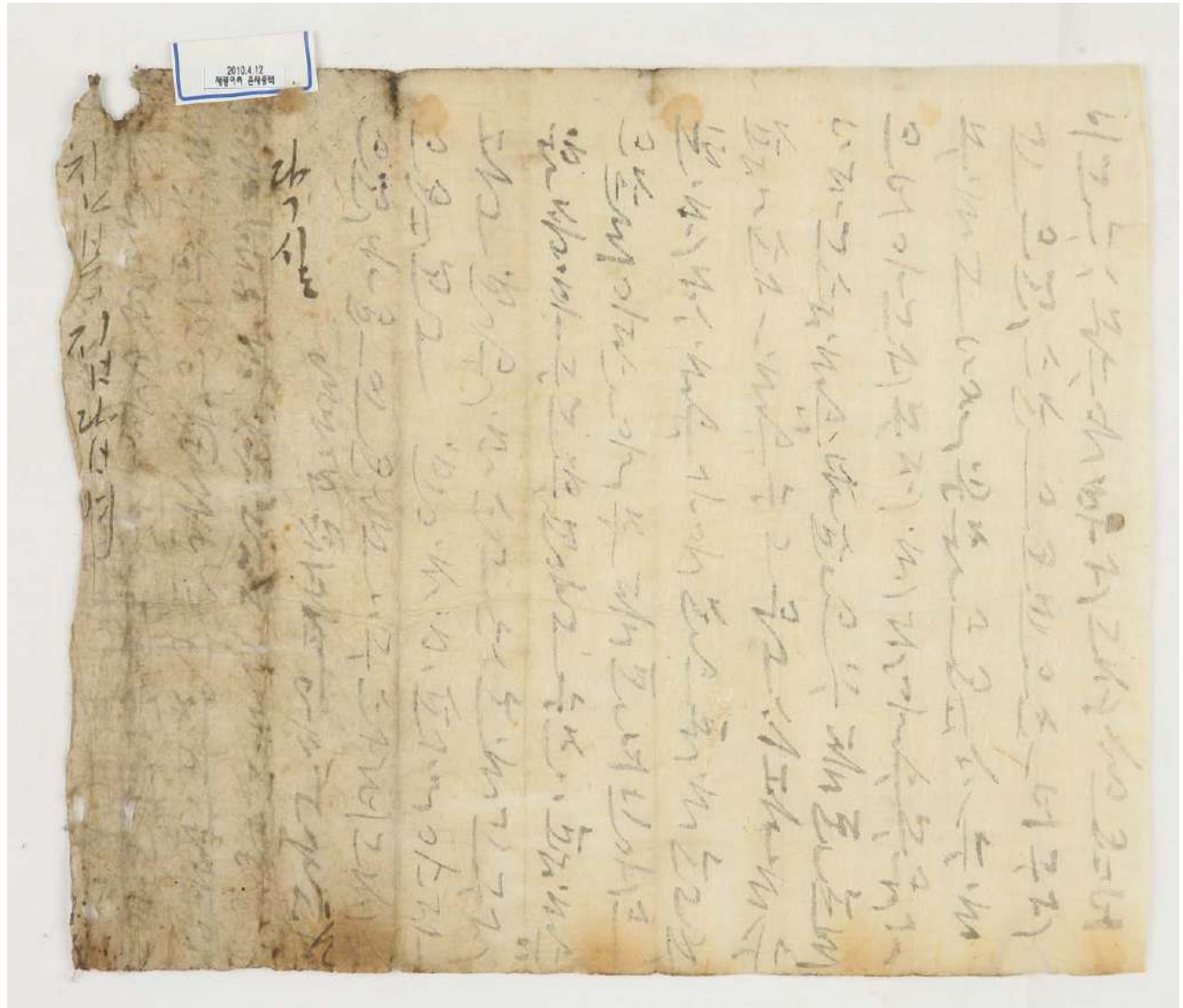




'생모'

시부나미는 아미를 구부러여 조려  
 그런데 한 줄을 사보내고 저를 보니  
 웃고 싶어 이만 주리니 생모이브르  
 점 쳐서 외마해 갈라가 의외  
 하니 왜 큰 복을 내나니 칭우니  
 여리 주니 눈고 눈의 붉은 주리  
 날리 볼은 큰 눈 점은 여리 다  
 건 후니 구워 주라 재의 일일  
 하여 리 점의 주리 네의 손  
 등라 이아는 정사나 구는 빈  
 고여 비의 정이 눈은 주라 주  
 주나 나른 일 제 일을 시로  
 보물외 비의 비나 리아 구  
 너는 신 각 구 구 내나 리  
 보전 후 가 구 주 한 비 행은  
 드는 작 구 구 구 구 구 구  
 먹고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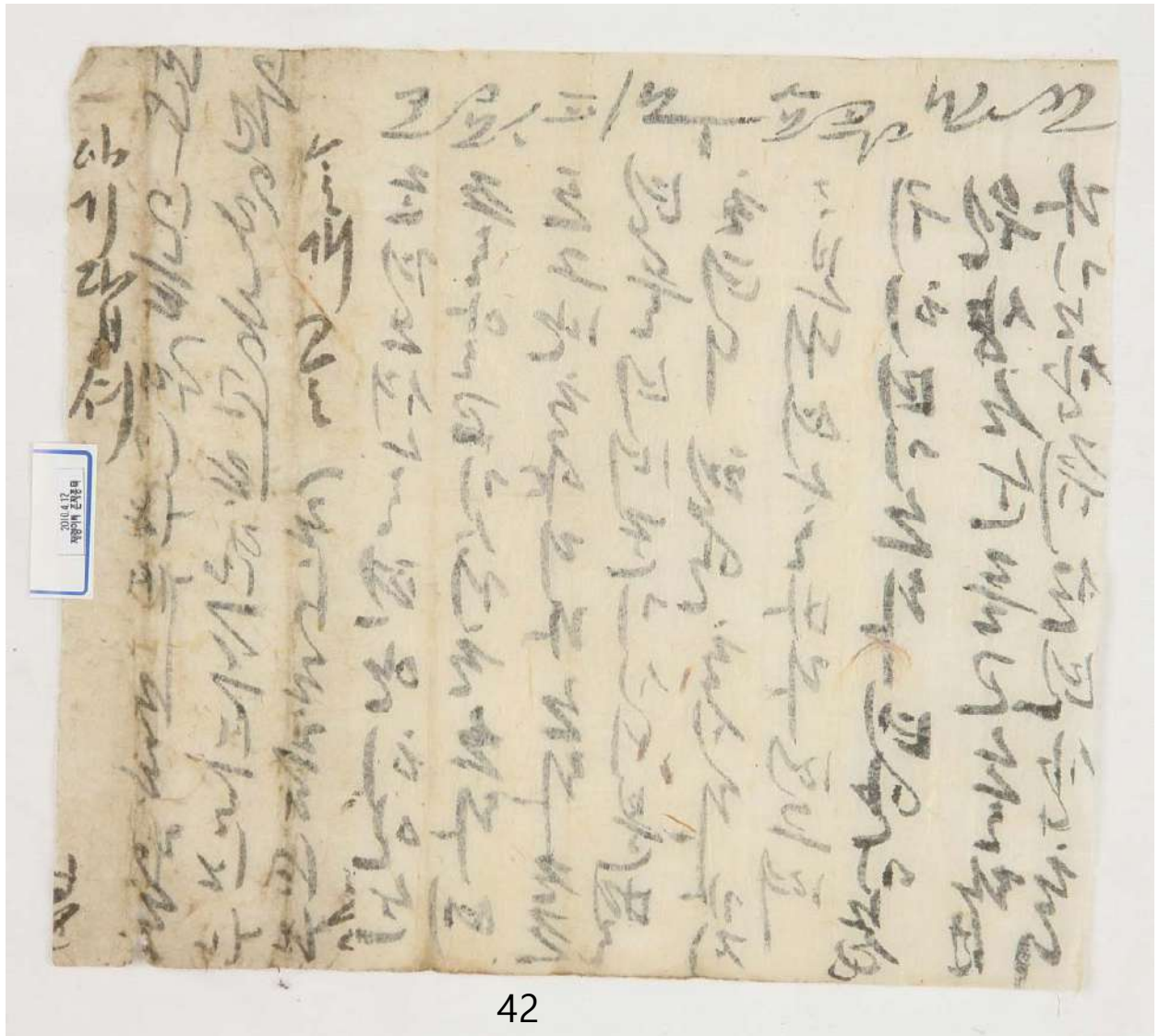
# '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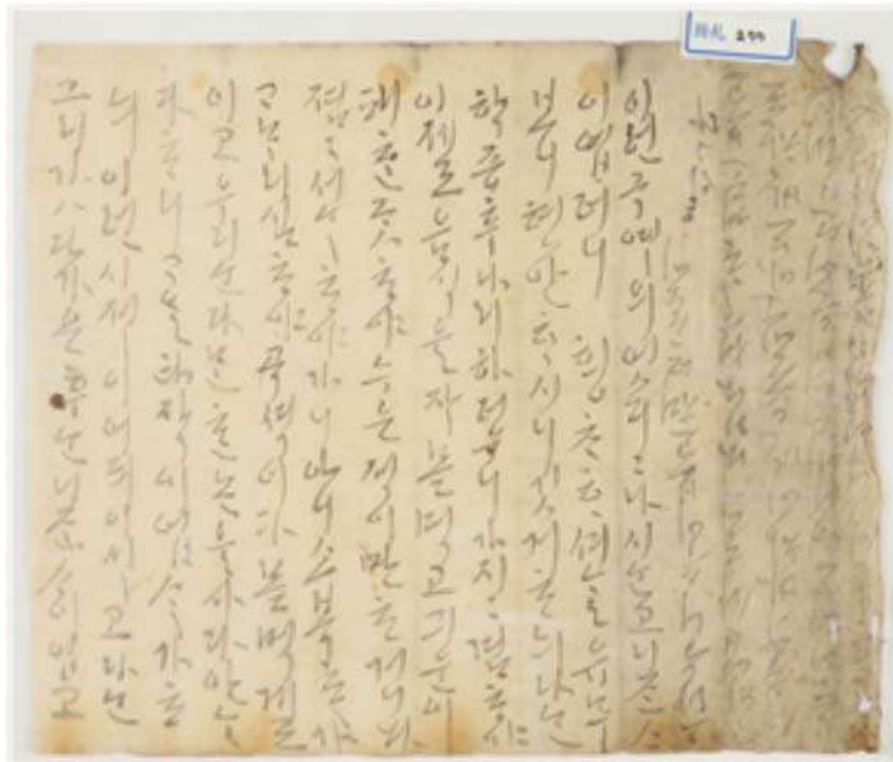
# '날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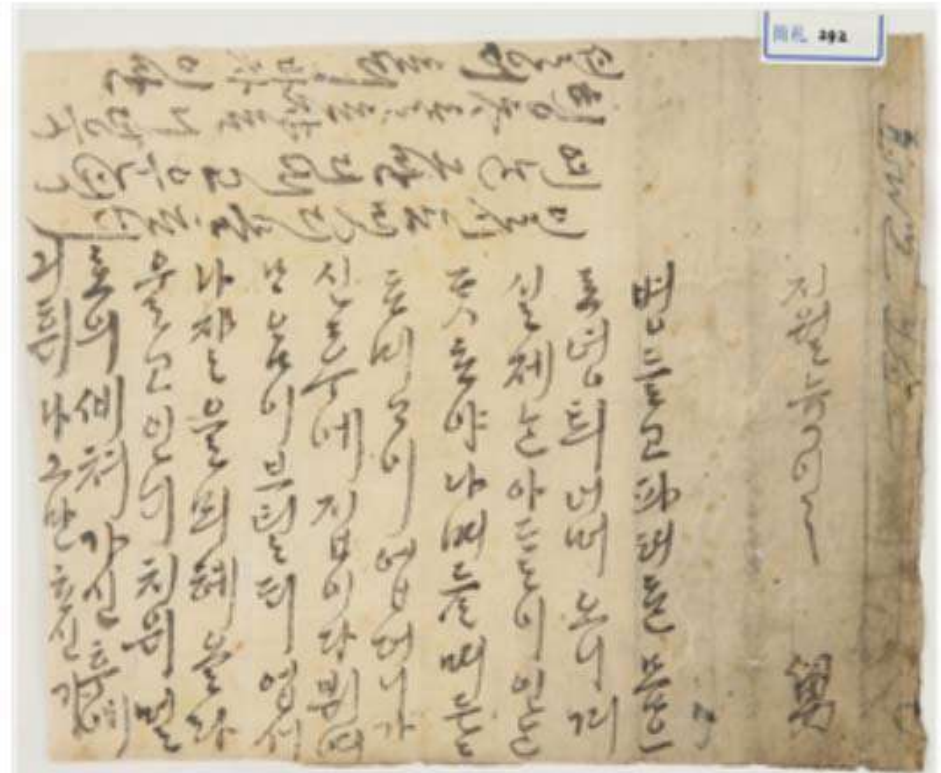


영해 인량리 충효당

편지는 크게 두 가지, '어미'가 쓴 것과 '시아버지(舅)'가 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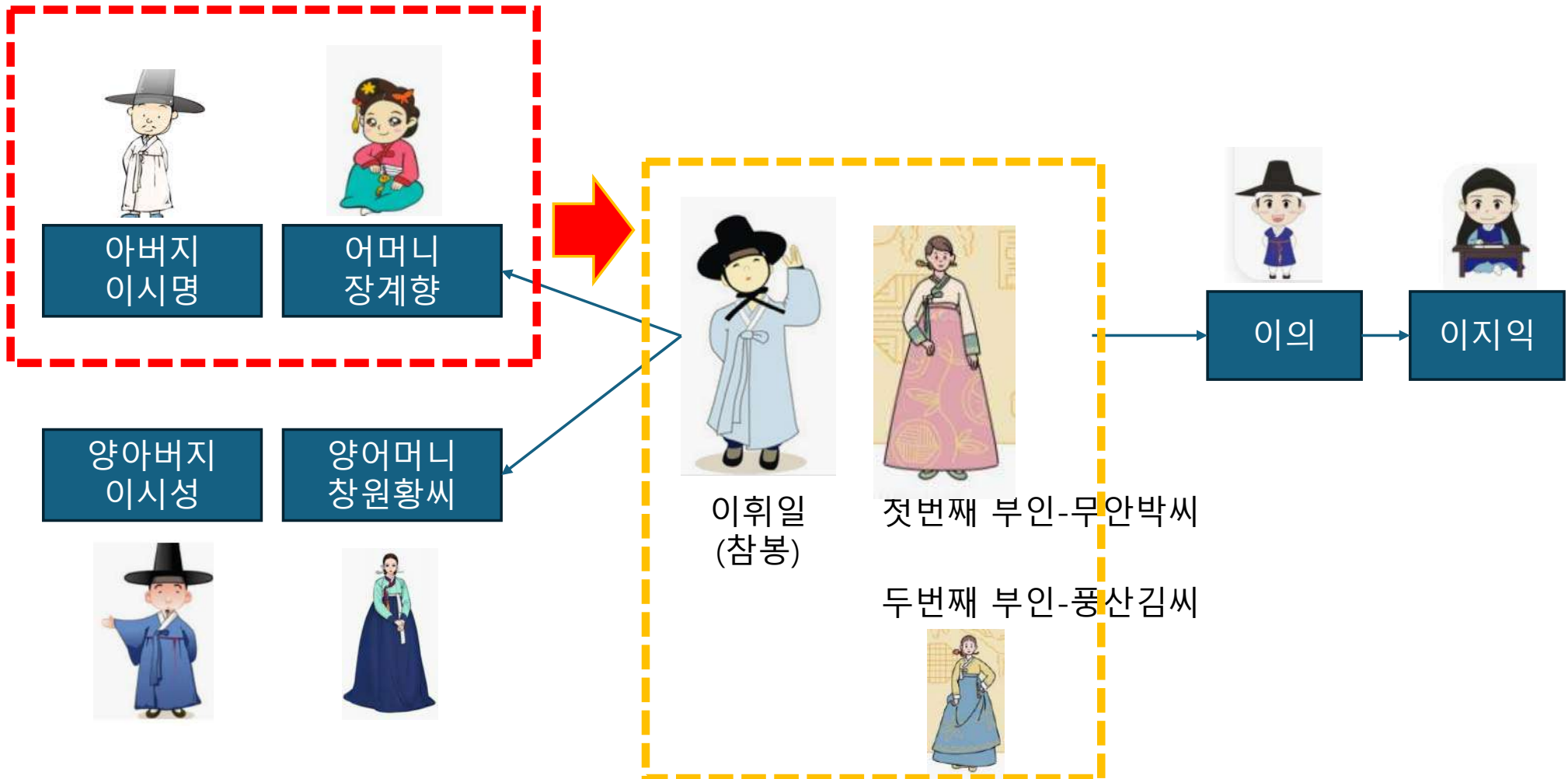


[그림 1] 어미의 편지 글씨체<6>



[그림 2] 구(시아버지)의 편지 글씨체<21>

# 재령이씨 존재종택의 주인, 이휘일



# 편지의 구성

• 총 44건

발신자	수신자	편지 번호	건수	소계
어미	참봉	1,9,18,25,(40)	5	28
	참봉집	6,22	2	
	아기	15,16,20,23,26,27, 35,36,39,(41),42	11	
	상듀/상주 아기	13,29,43	3	
	며느리	4,28,30,(34)	4	
	지망의 한마님께	44	1	
	진사집	14	1	
	미상	2	1	
구(시아버지)	며느리	7,10,17,21,37	5	6
	아기	5	1	
손(손자)	□□님	24	1	1
누의(누이)	당상원	11	1	1
한미(할미)	(아기)	31	1	1
미상	아기	8	1	7
	며느리	34,19	1	
	미상	3,12,32,33,38	5	
	합계		44	44

# 이휘일이 부모를 봉양한 거리



# 이휘일의 한글 글씨

## 楮谷田家八曲

### 其一 願豐

世上의 브린 몸이 畎畝의 늘거가니 밋밋  
일너 모르고 농노 일무스 일고 이 中의 憂  
國誠心은 年豐을 願호노라

### 其二 春

農人이와 이로더 봄왔네 바티가 새압  
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싸보내서 두어  
라내 집부더 호라 농호나 더옥도라

### 其三 夏

여름날더운적의 단싸히부리로다 밋  
고랑미자호니 싹흘너싸희듯네어쇼와  
粒니 후솟어니분이알호실고

### 其四 秋

구을희곡석보니 호음도호흘세고너  
힘의닐은거시머거도마시로다 이 밋  
기千駟萬鍾을부러무슴호리호

### 其五 冬

밤의란스출쇼고나죄란썩를부여尊  
家집자바미고農器점쳐러스라 來年  
희봄온다호거든결의 澁事호리라

### 其六 晨

새배빗나자나셔百舌이소리호다일  
거라아희들아밧보러가자스라 밤스  
이이슬거운애언마나기런호고호노라

其七 手

보리밥지어담고도트랏깡을향여비골  
노農夫들을趁時에머더스라아히야호  
그릇을너라親히맛바보너리라

其八 父

西山애히지고플굿데이슬난다호위를  
들너메고돈되여가자스라이中의즐거운  
뜻을닐너무슴하리오

右田家八曲者楮谷病隱之所作也病  
隱非力於農者久伏田間熟知稼穡之事  
因其所見而發之於歌雖其聲響疎數未  
必盡合於節奏調格而比之里巷哇謔怠慢之  
音則為有間矣於是使侍兒輩習而歌之時聽  
而自樂之遂以為山中故事云甲辰甲月日楮  
谷病隱書





[https://archive.aks.ac.kr/viewer/viewer.do?itemId=book#imgnode.do?itemId=book&gubun=booktree&upPath=01%5E0167%5EL016707%5EL016707F02%5EL016707F0206%5EG002%2BAKS%2BKSM-XF.1666.0000-20101008.B005c\\_006\\_00845\\_XXX&dataId=G002%2BAKS%2BKSM-XF.1666.0000-20101008.B005c\\_006\\_00845\\_XXX](https://archive.aks.ac.kr/viewer/viewer.do?itemId=book#imgnode.do?itemId=book&gubun=booktree&upPath=01%5E0167%5EL016707%5EL016707F02%5EL016707F0206%5EG002%2BAKS%2BKSM-XF.1666.0000-20101008.B005c_006_00845_XXX&dataId=G002%2BAKS%2BKSM-XF.1666.0000-20101008.B005c_006_00845_XXX)

李存齋

次韻

休光兄以道祖述

倒之情

味在智新多自居

蠢見 若馬羸緣度

嶺衣潤淺穿雲對

面無他語聯床褥亦

聞吾非真隱者何必

鳥為羣 英文有移

丙午仲夏玉川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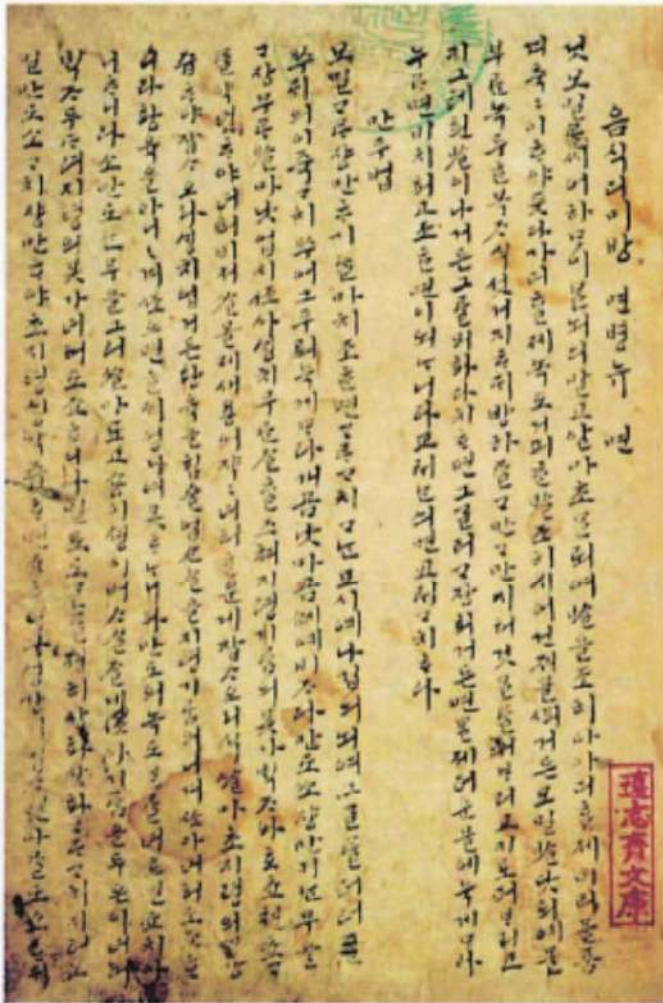


# 이휘일의 친어머니 '장계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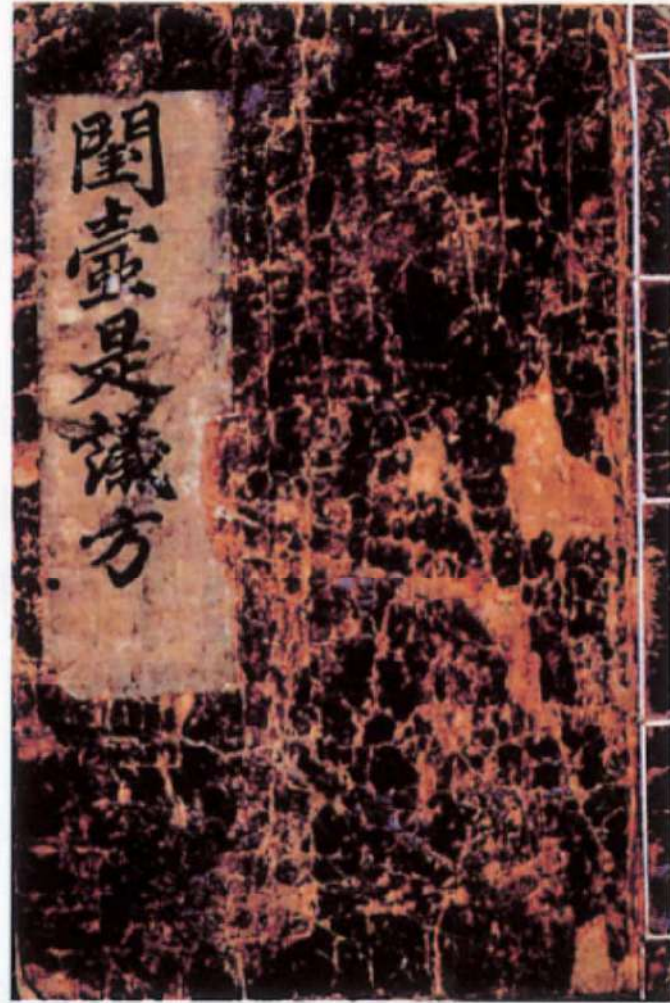


- 자녀들의 인성과 교육에 헌신
-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대식구를 거느림
- 최초의 한글음식조리서 "음식디미방"을 남김

01\_ 장계향(1598-1680) 초상화 : 표준영정 제 91호 2013년 3월 지정



『음식디미방』 권두



『음식디미방』 표지

장계향 선생이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고서 모습. 음식디미방이란 제목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양군 제공

### 3. 편지의 주요 내용

# 편지의 내용

번호	발신자	수신자	주요 내용
1	어미	참봉	자식의 병을 걱정함
2	어미		소식 전달. 음식, 옷 보냄.
3		글씨와 종결어미로 보아 어미가 아기에게 보낸 편지	소식 전달. 갖가지 사연.
4	엄이	며느리	자식 병에 대한 안부.
5	구	아기	방문했다 돌아 온 후 안부. 환자 이야기.
6	엄이	참봉집(탁실)	극한 여름 안부. 그리움. 병, 가뭄에 대한 걱정.
7	구	며느리	잘 있다는 소식에 대한 답장.
8		아기	더위에 무사하다는 소식에 대한 답장.
9	어□	□봉 (탁실)	추위에 대한 안부 물음. 걱정.
10	구	며느리	안부. 영장 날, 며느리 행차에 대한 걱정과 소식
11	누의	당싱 원계	동생의 병에 대한 걱정. 그리움.
12		글씨로 보아 '어미'가 존대의 대상에게 보낸 편지	궁핍한 상황 설명, 어느곳 방문에 함께 가고자 함.
13	어미	상주아기	자식과 손자의 병이 다소 나은 것을 축수하면서도 걱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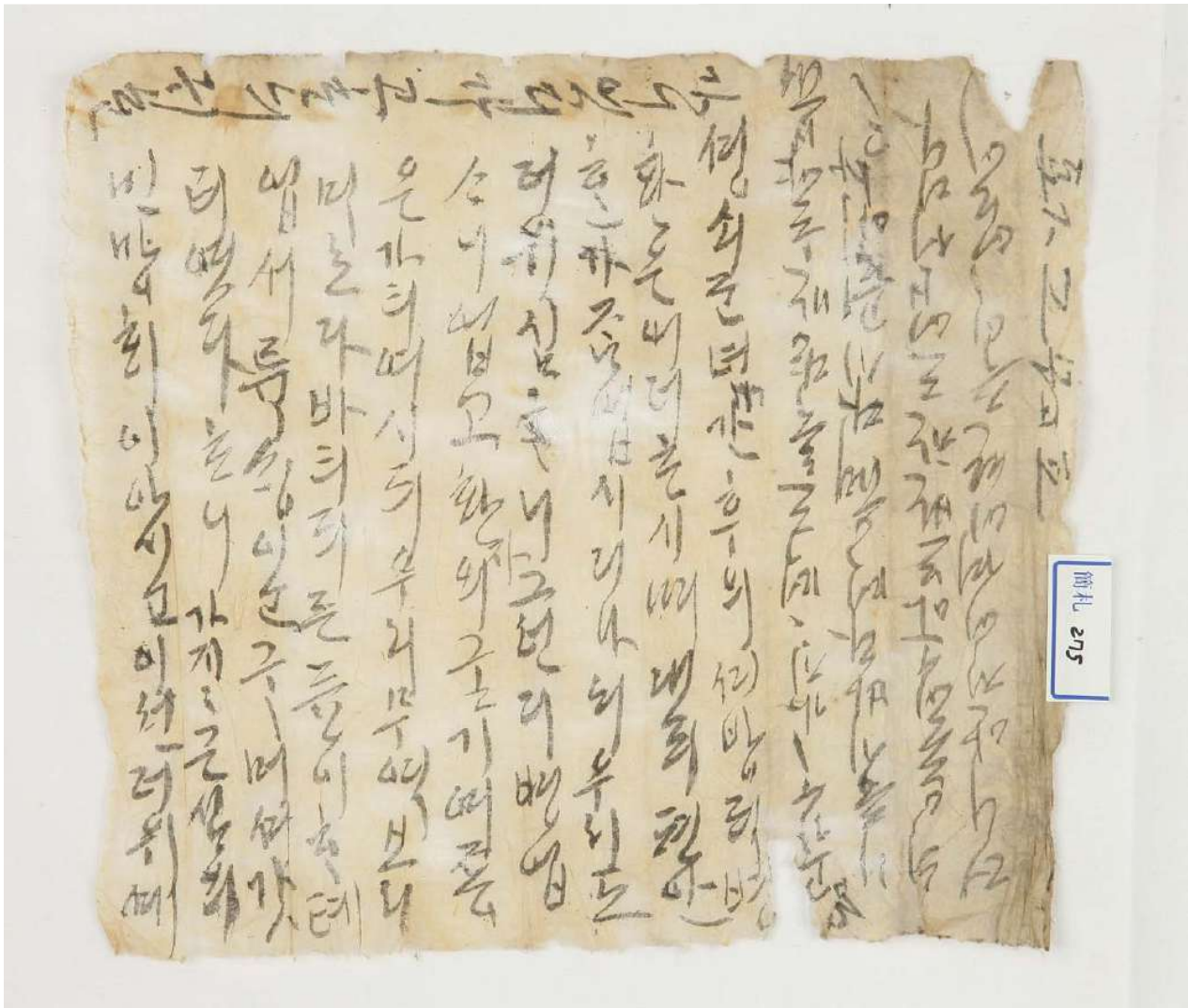
14	어미	진사집. 건넌집	안부, 먹을 것과 의복을 나눔.
15	어미	아기	자식의 병 걱정, 어미 자신의 병 소식을 전함.
16	엄이	아기(탁실)	막내 며느리 병이 심각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극난한 상황 설명.
17	구	며느 리	안부 듣고 기뻐함. 관에 세금 내는 일로 어려움을 전함. 손자 병 근심.
18	엄이	참봉	오랫만의 안부에 반가움. 며느리, 정길이, 피우소, 진보형님 등의 소식을 전함.
19	글씨로 보아 '어미'로 보임	며느 리	그럭저럭한 안부. 소 다리 부러진 이야기, 누가 죽은 이야기, 제사 이야기 등등의 소식을 전함.
20	어미	아기(탁실)	겨울, 아이들 병, 궁춘, 궁핍에 대한 걱정과 안부.
21	舅	며느 리	녕태어미가 왔다 가서 매우 외로움을 표현.
22	엄이	참봉집	자식 병 걱정, 면화, 무명 이야기, 일손 부족 이야기 등.
23	어미	아기 (탁실)	먹을 곡식이 없는 걱정. 비오는 날씨에 안부 걱정. 종이 일을 안하고 속인 일에 대한 분노.
24	손 지익	□□님	손자의 안부 편지.
25	어미	참봉	아들의 병 걱정.
26	엄이	아기(탁실)	아기네 모자 병 걱정. 역신 이야기, 아들 병 나아 기뻐함. 심난.
27	어미	(아기)	셔방댁의 초학(가을학증) 걱정.
28	엄이	두 며느 리	아기네 병 걱정. 그러나 농사가 잘 되어 다행이라는 이야기.
29	엄이	상두 아기	자식 병세 걱정, 약값, 우슈, 극심한 가난에 한탄.
30	엄이	며느 리(탁실)	자식 병이 나아 매우 매우 기뻐함. 손자 의의 병도 나아 기뻐함.
31	한미(할미)	(아기)	할미가 손자에게 보낸 편지. 손자 병이 나아 기뻐함. 음식 보냄.

32		내용과 종결어미로 보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것으로 보임.	외내 아기가 왔다가 병만 하고 돌아 갔다는 얘기, 눈이 어둡다는 말, 안질 등 자주 나타남.
33		내용과 종결어미로 보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것으로 보임.	김도령이 초학으로 편치 않다는 이야기. 왔다가 금방 돌아가니 잊지 못한다는 심정.
34	(어미)	며느리	역신이 퍼지는 긴급한 상황. 자식들이 역신 시작하였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이야기.
35	어미	아기(탁실)	자식 병을 걱정. 몸을 안정히 가지는 것이 효도라 하며 염려함.
36	어미('숙이 어미'로 보이기는 하나 '즉 일 어미'의 탈획으로 봄이 적당)	아기	수사은한 이야기. 자식이 참봉 벼슬에 제수된 것을 기뻐한 것으로 보인다.
37	(구)	며느리	아기 병 걱정, 슬피아기에 대한 안타까움
38		내용과 종결어미로 보아 어머니가 아기에게 보낸 것으로 보임.	편안하단 소식 듣고 기뻐함. 뜨네 양모 생신날에 대한 이야기.



39	엄이	아기	평안하단 소식에 기뻐함. 모자의 정이 커서 괴롭지만 잊고 산다는 이야기. 반찬으로 생선을 보냄. 진시 딸이 해산하다가 죽은 이야기.
40	(어미)	참봉	아이들 돌림증 걱정, 생포담치를 보내주어 반갑다는 이야기. 가난이 심하여 시절이 괴롭다는 이야기.
41	(엄이)	아기	피우소에서 아자바님 행차, 제사 등을 걱정하며 괴로워 하고 있다.
42	어미	아기(놀 개골)	편안한 소식 듣고 기뻐함. 가지 가지 보낸 음식에 감사함. 여러 상사에 대한 소식 전함.
43	생모	상주아기	자식 건강 걱정. 내 병에도 힘쓰고 있으니 너도 그리하여라 하는 어미의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생모 이 뜻을 알라는 당부.
44	엄이	□망의 한마님께 (이휘일의 후처인 풍산김씨에게 쓴 편지로 추정)	아기의 병세 걱정이 심함. 보낼 것이 없어 걱정. 정기네 말이 죽은 이야기. 나이가 많아 인사가 희미하고 어두워 민망해 함.

# 4번 편지 '귀한 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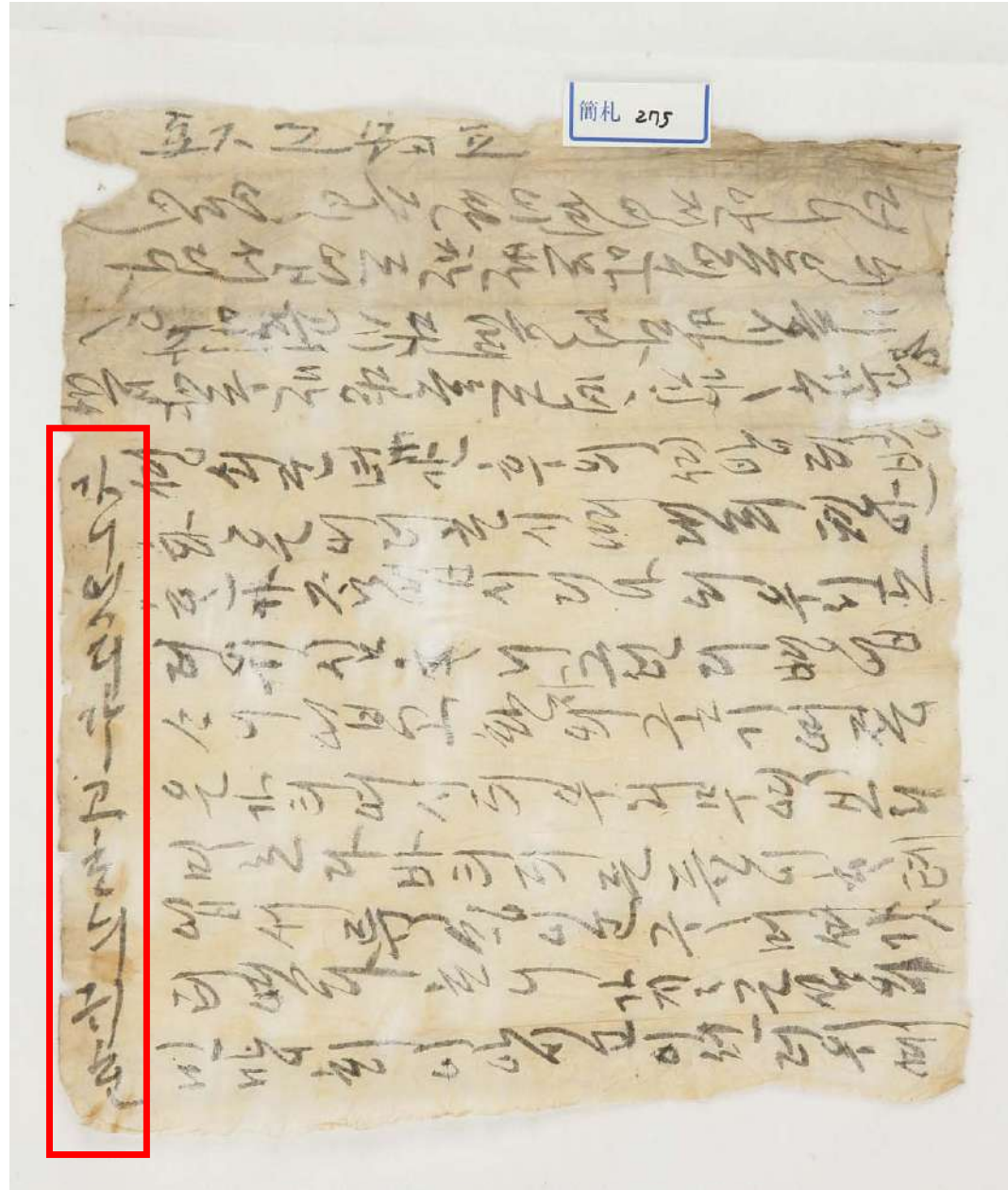


성쇠 든녀 간 후의 서방덕 병 환은 어더하시며 내외 편안 هنگ. 줌 업시 디나뉼. 우리도 더위 심헌니 그런 디병 업스니 업고 환자의 굳기여 종은 가티여시디 우리 무역 보리 밀로 다 바티디 든 둡 이 허 테 업서 특싱이논 굴머셔 갓 티엳다 하니 가지 : 근심외 민망히. 이 아기는 이런 더위에 가니 엳디 갈고 허닉. 귀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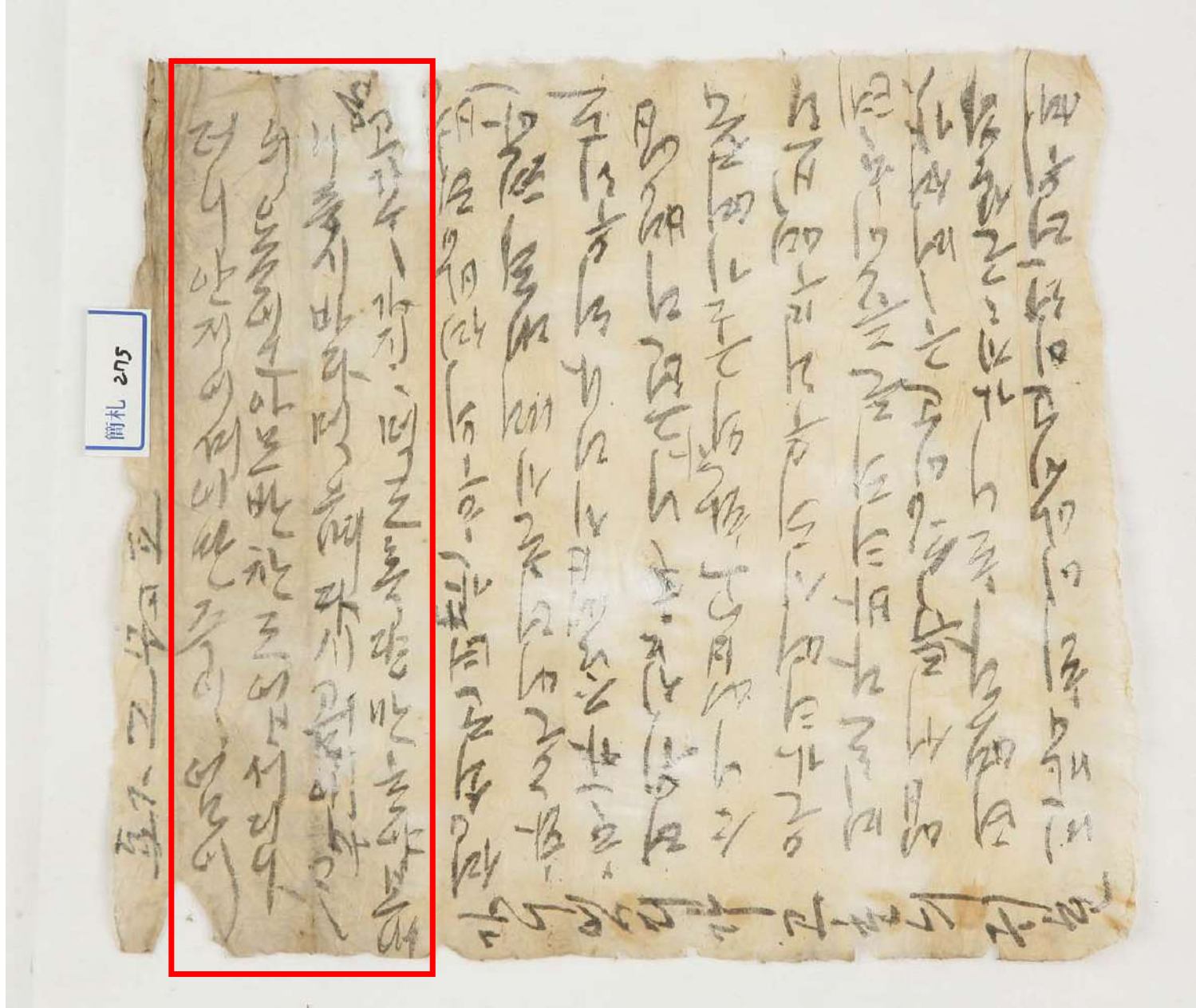
[우변]  
고기늘 가지 : 먹도록 당만 허야 보내 니 즉시 바다 먹으며 다시곰 일굴 뉼. 요스이는 아모 반찬도 업서 디나 더니. 안질 이셔 이만. 즉일 엄이.

[뒷면]  
며느리 답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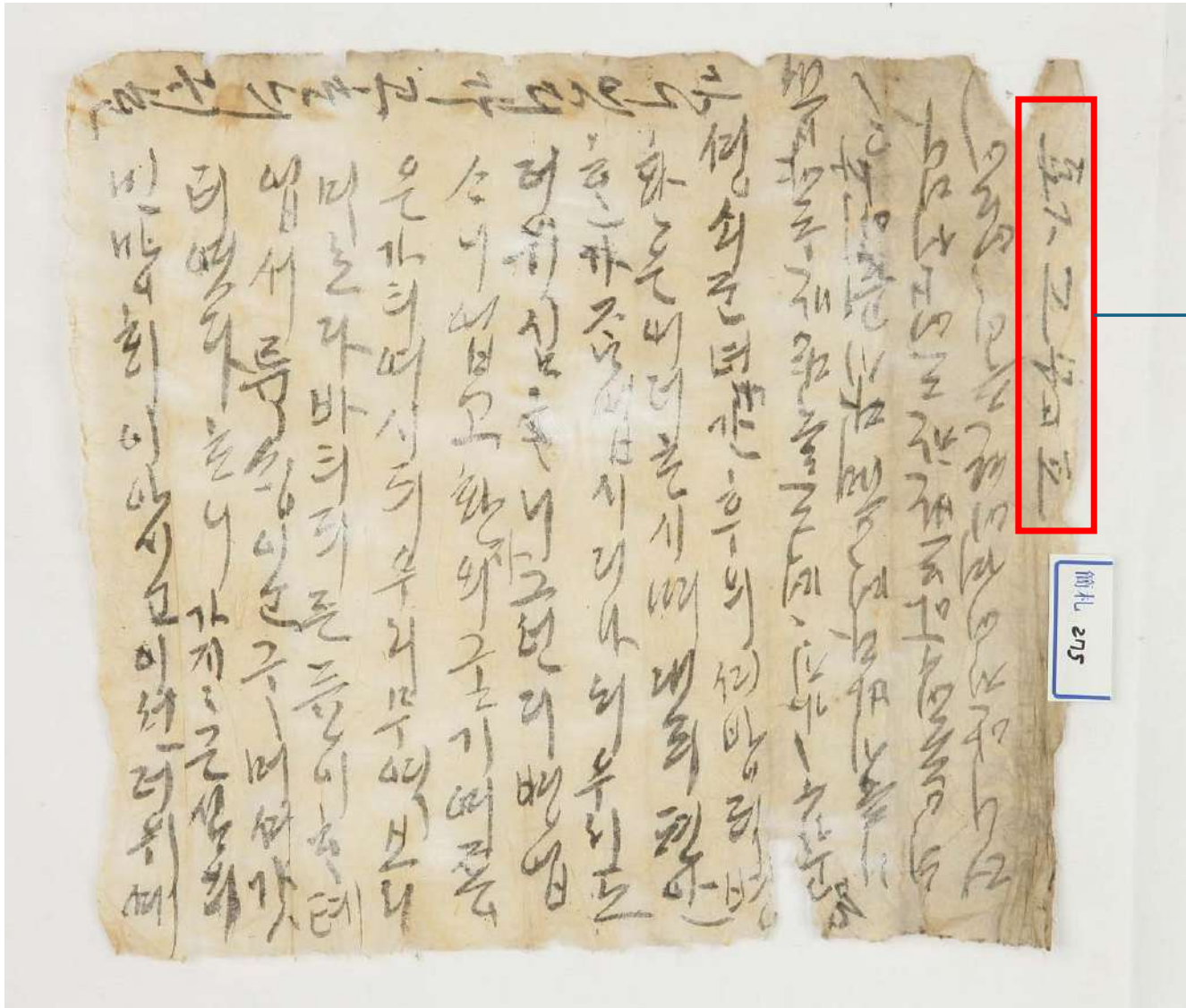
4번 편지 회전  
(상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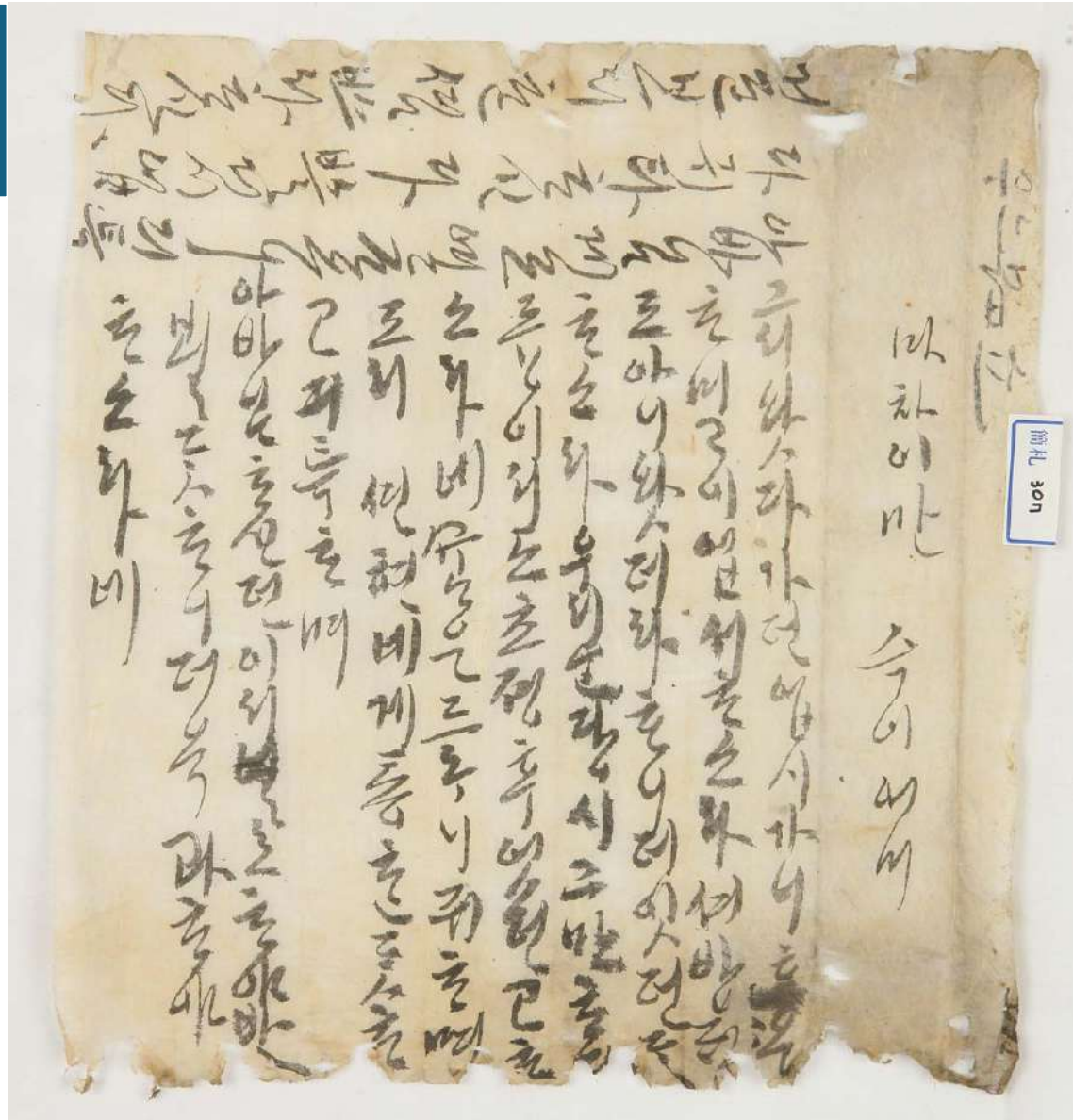
4번 편지 회전  
(우변)



4번 편지 뒷면



36번 편지  
'수사은(受賜恩)'





## 4. 한국학 연구를 위한 고자료의 가치





본가에 곧 내려갈 것이니...  
것이라고 전함.

● 기묘 팔월 날 1793. 08. 26  
본가에 내려가서 쓴 편지, 본가(인동)의 소식을 전함.

● 기묘 삼월 초이월 1793. 03. 02  
가족의 건강에 대한 일상적인 안부.

● 기묘 지월 초일 1793. 11. 01  
서로 주고받은 물품들을 확인하고, 화영(거울모자) 끈을  
고쳐서 보내줄 것을 부탁함.

● 기묘 지월 초이월 1793. 11. 06  
보내 준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고향의 노년들  
떠올리며 객회를 토로함.

● 기묘...  
경민(이름) 상임일 때...  
일상적인 안부를 전함.

● 기묘...  
오늘 안부 전하는 뜻을 전함.

● 기묘...  
연습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견제 지을 것을  
보내겠다고 알림.

● 기묘...  
공민(이름) 상임일 때...  
노년 생활을 위해 사유촌의 안부를 구해오기 및  
이유를 위해 기원을 구해서 보냄.

한국학 연구  
를 위한 한글  
편지의 가치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한 미시사적 이해

인물의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입말이 표현된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

토속적 어휘와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함

---

+  
•  
◦

고맙습니다  
Thank you

